
2022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2 ANNUAL REPORT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0
2021
2022

CONTENTS

I 연구소 소개

- 006 설립목적
- 006 주요기능
- 007 경영목표
- 008 연혁
- 010 조직도
- 011 일반현황

II 2022년도 주요 연구

기본연구

- 014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구축·연계 방안 연구
- 016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 방안 연구(Ⅰ):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 018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 020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 022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심층분석 연구
- 024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026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행정 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연구
- 028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 030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일반연구

- 03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Ⅴ):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034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Ⅴ)
- 036 「2019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 038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Ⅰ): 위탁 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 040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Ⅰ): 임신·출산 관련 인프라 중심으로
- 04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격차 해소 방안 연구(Ⅰ)
- 044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 046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Ⅰ): 실태조사 및 조기 선별 도구 개발
- 04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한국아동패널 Ⅱ)
- 050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2

수시연구

- 052 유치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 마련 및 매뉴얼 개발
- 053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 054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개선방안
- 056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기초연구
- 058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 060 유·초 연계교육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이음교육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06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서비스 인력 관리를 중심으로
- 064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개편 방안
- 066 양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

III | 2022년도 주요 활동

주요 행사

- 070 육아정책 심포지엄
- 071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 072 KICCE 정책토론회
- 075 국제세미나
- 076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 077 정책세미나 및 포럼
- 079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 080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포럼 및 공청회
- 081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 083 업무협약

주요 간행물

- 084 육아정책포럼
- 086 육아정책 Brief
- 087 Issue Paper
- 088 KICCE Policy Brief
- 089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 090 육아정책연구
- 092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V | 2023년도 추진계획

2023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096 2023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097 중점연구사업

2023년도 사업개요

- 098 기관고유사업
- 101 일반사업
- 103 2023년 연구사업 총괄표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저출산 문제와 육아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3년 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면서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이겨내느라 힘들었지만,
영유아 시기를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생활을 한 아동들에게는 일상으로의
회귀가 다시 낯설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들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보통합 추진,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자격증 도입 논의 등
올해는 육아정책 분야의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지 않고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를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고,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보장받길 기대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자격증
도입을 통해 아동들을 위한돌봄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육아정책 제도들의 변화로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좀 더 행복해지길 바라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의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의 변화에 국책연구기관으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아동들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Sang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육아정책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양육 수당 지원,
지역사회 육아 공동체 연구, 아동돌봄 통합적 연구, 양육지원법 제정 연구,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보통합, 부모급여, 아이돌보미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으로 공적 책무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취약 아동에 대한 연구는 매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위탁가정 양육 지원,
육아지원기관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대책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생애초기 지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임신·출산 인프라 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지원 연구, 미래 환경 대응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공간 연구,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연구,
육아지원기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연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육아정책 성과 분석,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아동패널 연구 등과 같이 장기적인 연구결과
축적이 필요한 주제는 연속과제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KICCE 정책토론회, 국제세미나를 통해 현장 전문가,
학계,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한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 Brief, 이슈페이퍼, 영상보고서, 카드뉴스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될 연구에도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KICCE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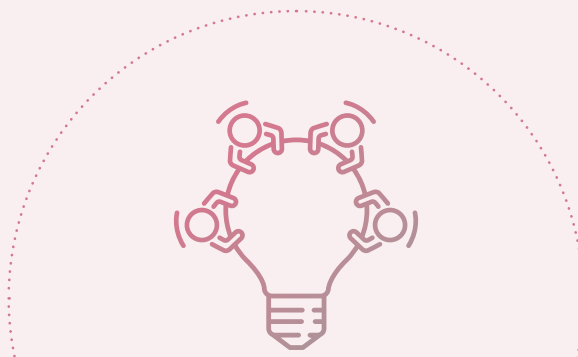


연구소 소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URPOSE OF ESTABLISH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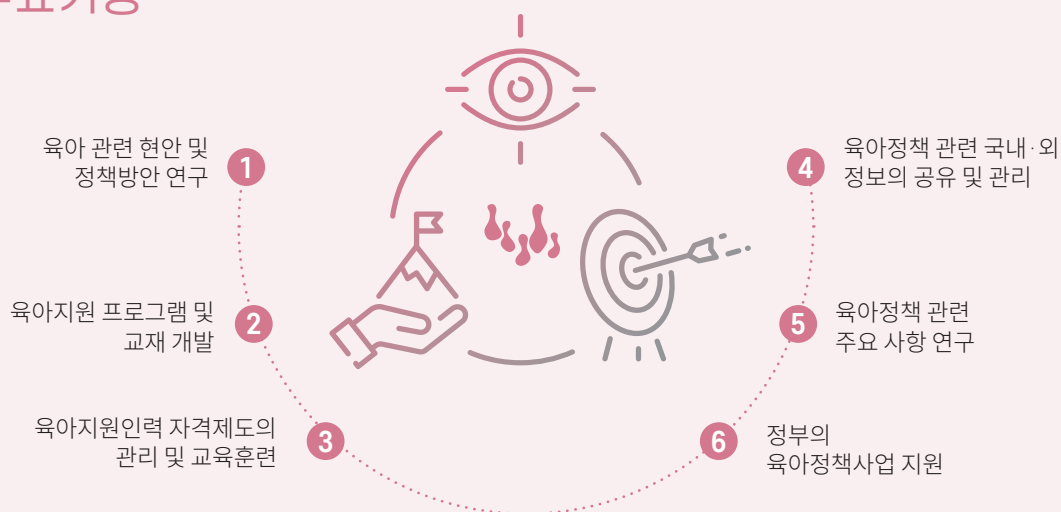
설립목적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

MAIN FUNCTION

주요기능



MANAGEMENT GOALS

경영목표



[경영목표] 추진전략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선도

- 아동 권리와 생애주기에 기반한 연구영역 확장
- 미래대응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 연구 강화
- 육아친화적 가정 및 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 주도
- 정책화 기여도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관리 체계 개선

국내외 의제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 실현

- 포스트코로나 대응 국내·외 육아정책 플랫폼 활성화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및 성과공유 다각화
- 학제 간 융합과 협력을 통한 육아정책연구생태계 조성

포용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관 위상 제고

- 법인화 추진과 인권·윤리경영 강화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조직문화 강화
-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관리 효율화

HISTORY

연혁

육아정책의 발전과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 지난 18년간 힘차게 내딛어온 걸음,
국가미래를 향한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5. 02. 04.

서초동 외교센터로 청사 이전

2015. 12. 02.

OECD ECEC(유아교육·보육)
Network 연구기관 지정

2018. 12.

국제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SCOPUS 등재

2019. 01. 11.

'한국아동패널'
조사데이터 공공데이터
최초 개방

2019. 12. 23.

명동 포스트타워로
청사 이전

2022. 05. 03.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

2015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2017. 12. 08.

제5대 백선희 소장 취임

2021. 01. 19.

제6대 박상희 소장 취임

2021. 02. 19.

데이터연구센터 신설

2021. 11. 25.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6주년 기념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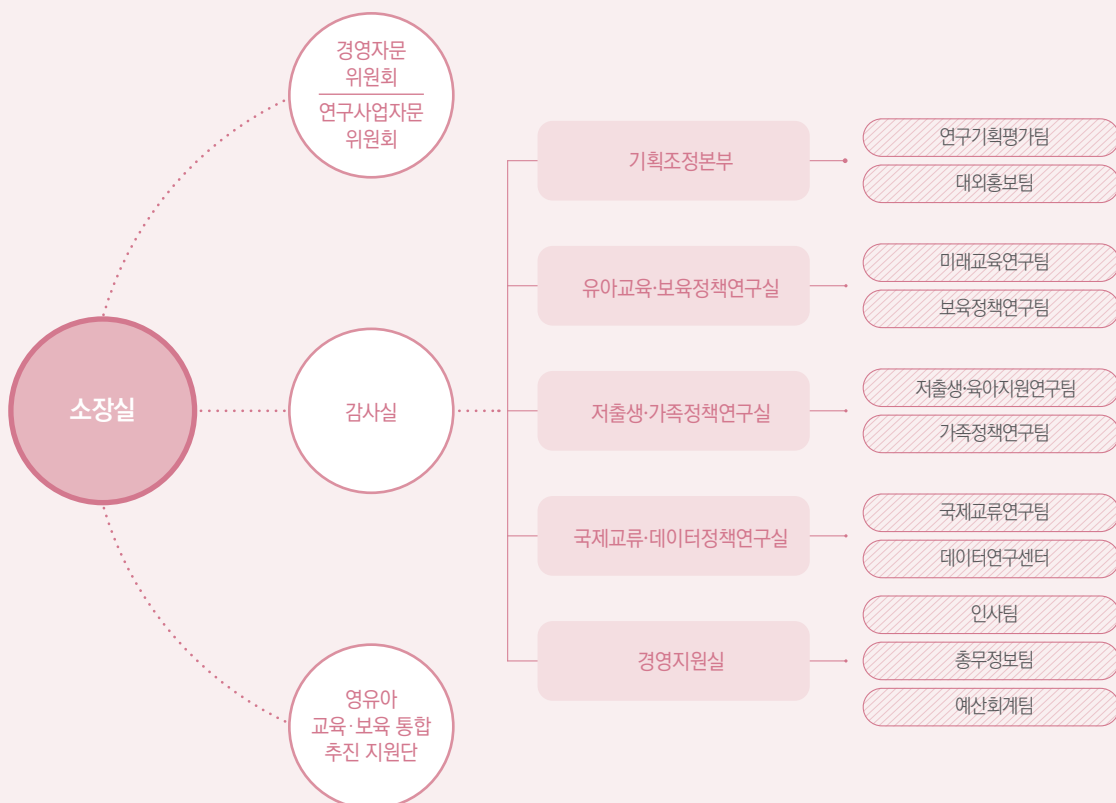
2023. 03. 07.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지원단 신설

ORGANIZATION

조직도

연구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1본부, 4실, 10팀, 1센터, 1단**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자문위원회

길홍근 교수(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김정현 교수(고려대 정책대학원)

신동욱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이영환 교수(계명대)

이주복 노무사(하이에치알 노무법인)

*가나다 순

연구자문위원회

도미향(한국부모교육학회장)

성정현(한국가족학회장)

손인숙(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사장)

신나리(한국보육지원학회장)

양진희(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이은주(한국아동권리학회장)

전효정(한국아동학회장)

정정희(한국유아교육학회장)

조형숙(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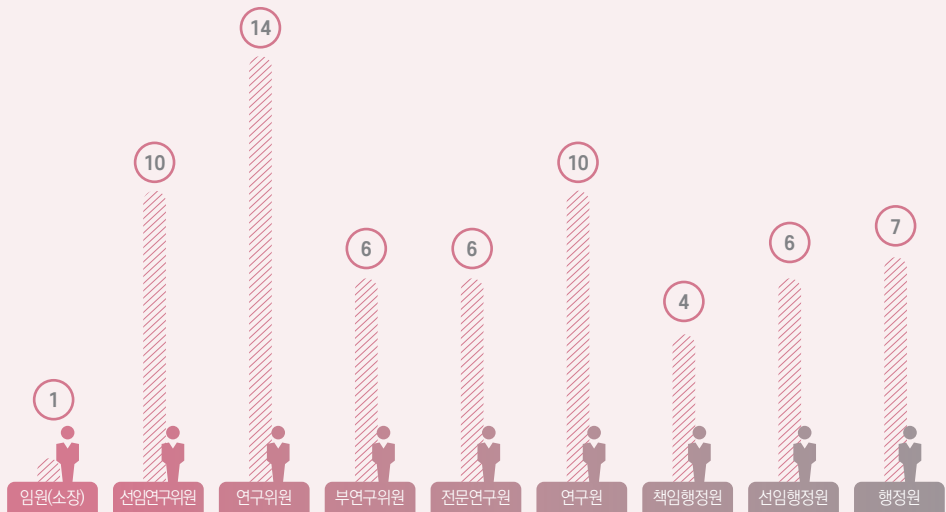
최일선(한국육아지원학회장)

*가나다 순

GENERAL 일반현황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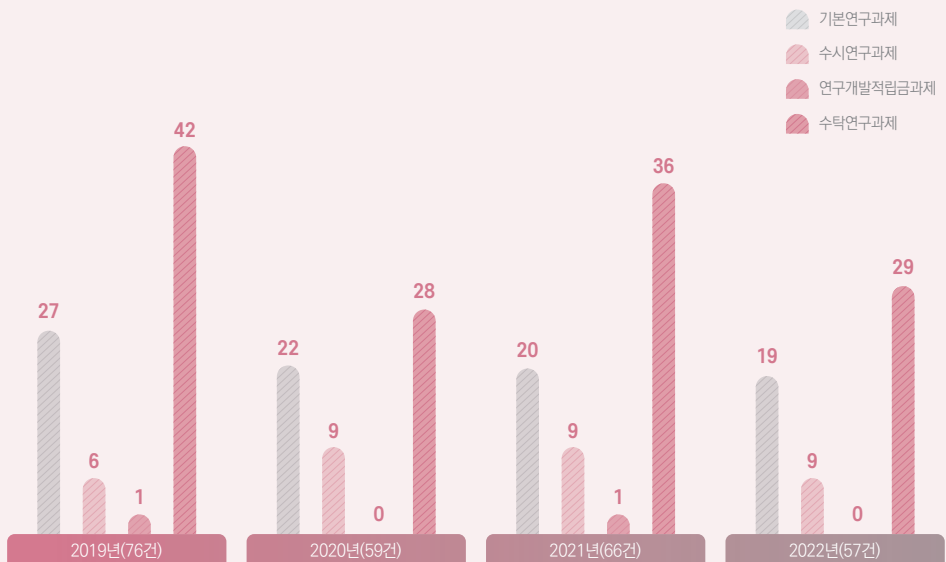
*전체 64명 | 단위: 명



*2023. 3. 31 기준

연구현황

*연구시작일 기준 | 단위: 건



2022년도 KICCE 연차보고서



2022년도 주요 연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구축·연계 방안 연구

김동훈, 박원순, 김태우

배경 및 목적

-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의 객관적, 과학적 관리를 위해 우선 육아지원 재정자료의 기준과 방안을 제안함.
-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객관적인 재정자료 규모 등 현황자료에 분석과 분류체계를 고찰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 분류체계 검토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정책 재정지원 현황 자료 및 관련 법·제도 등
- 재정자료 분석
 -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자료 분석을 위해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세출예산 및 결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 통계청,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의 시스템에 공개된 재정 및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 전문가 회의

연구결과

-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는 중앙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나,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설정 수준이나 범위가 상이함.
 -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육아지원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예산이 분야-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까지만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육아지원정책 사업은 주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 분야와 관련성이 높긴 하나, 실제로는 이외 분야에서도 다양한 육아지원정책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육아지원정책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시 부문을 다르게 하거나 세부사업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있어 육아지원정책의 전체적 재정규모 파악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각종 육아지원사업에 대한 분류 및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아 세부 재정규모 산출에도 한계가 있음.
- 교육재정 관련 접근 가능한 공개시스템 상에서는 유아교육 재정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결산 자료에는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원가비목통계 등에서 유치원을 구분하여 관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육아지원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류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분야-부문의 예산편성 및 분류기준은 현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는 정책사업 단위부터 가급적 일치시켜나가면서 단위사업의 수준을 맞춰나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일부분 현행처럼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의 프로그램사업으로서 정책사업 단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목표나 실정에 맞게 설정하도록 현재의 분류체계를 준용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관련 예산의 단위사업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예산서의 단위사업명은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단위사업명이 상이하고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종합적인 보육지원 사업 등 육아지원 정책 재정현황 파악이 어려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사업명을 일치하되 일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위사업명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함.
 - 중앙정부에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사업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있는데 중앙정부에는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일치와 불일치를 혼용하는 방안이 있을 효율적일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방특수보육시책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육사업들이 있어 이에 대한 규모파악을 위해 자체사업 여부를 추가로 포함하여 총 12개의 단위사업명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제시함.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박은정, 조미라, 윤지연, 류연규, 윤자영

배경 및 목적

- 급격한 노동시장의 다변화와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부모의 돌봄 양상이나 지원욕구 관련 연구는 미비함.
- 자녀 돌봄정책 중에서 시간정책은 정형 고용과 비정형 고용 간에 불평등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 보편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은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를 증가시킴.
-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자녀돌봄 시간 정책의 이용 현황과 욕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돌봄의 양상 및 역동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부모와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서 돌봄권의 평등한 실현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정책 자료 검토
- 2차 자료 분석: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 집단심층면담(FGI):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부모 28명
- 설문조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부모 1,637명
- 콜로키움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시간 특성
 - 정규직, 상용직, 전일제는 근무일에 본인의 실제 자녀돌봄 시간이 가장 짧으며, 희망하는 시간과 실제 간 격차가 다른 고용형태보다 크고, 본인과 배우자 간 격차도 큼.
 -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시간제는 본인의 자녀돌봄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요인이며, 시간제 집단에서 희망보다 실제 자녀돌봄 시간이 길게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집단 전체의 본인의 실제 자녀돌봄 시간이 희망하는 시간보다 길게 나타난 반면, 비정형 근로자 중 특고직, 플랫폼 노동자, 기타 1인 자영업자 집단에서는 배우자의 자녀돌봄 시간이 정규직보다도 유의미하게 짧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 제도 이용 접근성
 - 정규직은 제도 인지도와 이용 경험 비율이 모두 높았으며, 비정규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형 근로자는 상당히 낮게 나타남.
 - 육아휴직제도의 어려움은 소득감소(54.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장의 거부나 압박, 승진 및 발령에 미치는 영향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형태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다만, 육아휴직제도 미이용 이유에서는 고용형태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
- 일-자녀돌봄 양립 어려움
 - 자녀 관련 시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의 변동을 경험하는 부분에서 고용형태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비정형 근로자 중에서 기타 1인 자영업자 집단에서 일-자녀돌봄 어려움 및 돌봄공백이 다소 높게 나타남.

정책 제언

- 모든 일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추진 방안
 -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완화: 피보험자격 상실 이후에도 지급자격 부여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장 수준 제고: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 기업의 의무 및 역할 강화: 기업에 휴가·휴직제도 고지 및 사용 권장 의무 부과, 기업 인센티브 및 관리감독 강화
-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시간정책 추진 방안
 - 높은 제도 이용 접근성 x 경직된 근로시간: 유연근로제도의 확대, 복직 후 부당한 처우 금지 강화 및 복귀 지원
 - 낮은 제도 이용 접근성: 고용보험 가입 및 시간지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증빙절차 및 서류 간소화
 - 낮은 제도 이용 접근성 x 유연한 근로시간: 다양한 시간대의 보육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육아공동체 활용, 유연한 육아휴직급여 체계
 - 낮은 제도 이용 접근성 x 낮은 유연성과 긴 근로시간: 육아기 부모의 야간근로 인력 배치 지양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양미선, 김나영, 박은정, 오미애, 송신영

배경 및 목적

-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적정 양육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대상 연령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의 특성과 어린이집·유치원 및 양육 서비스(돌봄 및 교육)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연구방법

- 관련 선행연구, 관련 법 및 제도, 가정양육수당 제도 변화, 지원 실적,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정리함.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조사를 실시함.
- 블로그 및 카페, 지식인 등의 포털과 국내 100여개 언론사 뉴스 기사 등에 언급된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아동 가구의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취학 전 영유아 부모 총 31명을 대상으로 FGI 심층면담을 실시함.

연구결과

[영유아 현금지원정책 빅데이터 분석]

- 현금지원정책별 온라인 언급량은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순임.
 - 온라인 언급량은 '가정양육수당'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도입 시기 등 고려하면 '아동수당'이 시행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언급량이 가장 많음.
- 가정양육수당 관련 담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로 수령금액, 신청방법, 출생신고 일자에 따른 소급지원 등의 언급이 발생함.
 - 가정양육수당의 사용처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통장과 병원, 접종 등이 다수 언급됨.
 - 가정양육수당 만족도에 대해 긍정 40%, 부정 60%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및 가구 현황]

- 가정양육수당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이 있는 가구 총 2,057가구, 아동 총 2,295명이 조사에 참여함.



- 24개월 이상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최초 지원받기 시작한 시기는 0~11개월 67.8%, 12~23개월 9.8%, 24~35개월 9.8%, 36개월 이상 12.6%임.
- 자녀가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부적절 40.5%, 매우 부적절 35.3%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가정양육수당 적정 금액으로 46.0%는 30~50만원, 50~70만원 26.2%, 30만원 미만 21.4%, 70만원 이상 6.4% 순이었고 평균 39.5만원임.
- 가정양육수당의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 도움 정도에 대해 부모 중 48.8%는 어느 정도 도움, 18.3%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 정도는 평균 2.8점임.
- 만 3세 이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51.6%가 찬성함.

정책 제언

-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대상을 0, 1세에서 2세까지로 확대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일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 및 부모, 가구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보완적으로 마련해야 함.
 -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단순화시키고, 정책 수요자 대상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만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하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는 일몰함.
- 시간제보육 지원대상을 유아까지로 확대하고,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문화바우처 등의 양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대체 지원함.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권미경, 이정원, 이재희, 엄지원, 윤소정, 이소영, 황선영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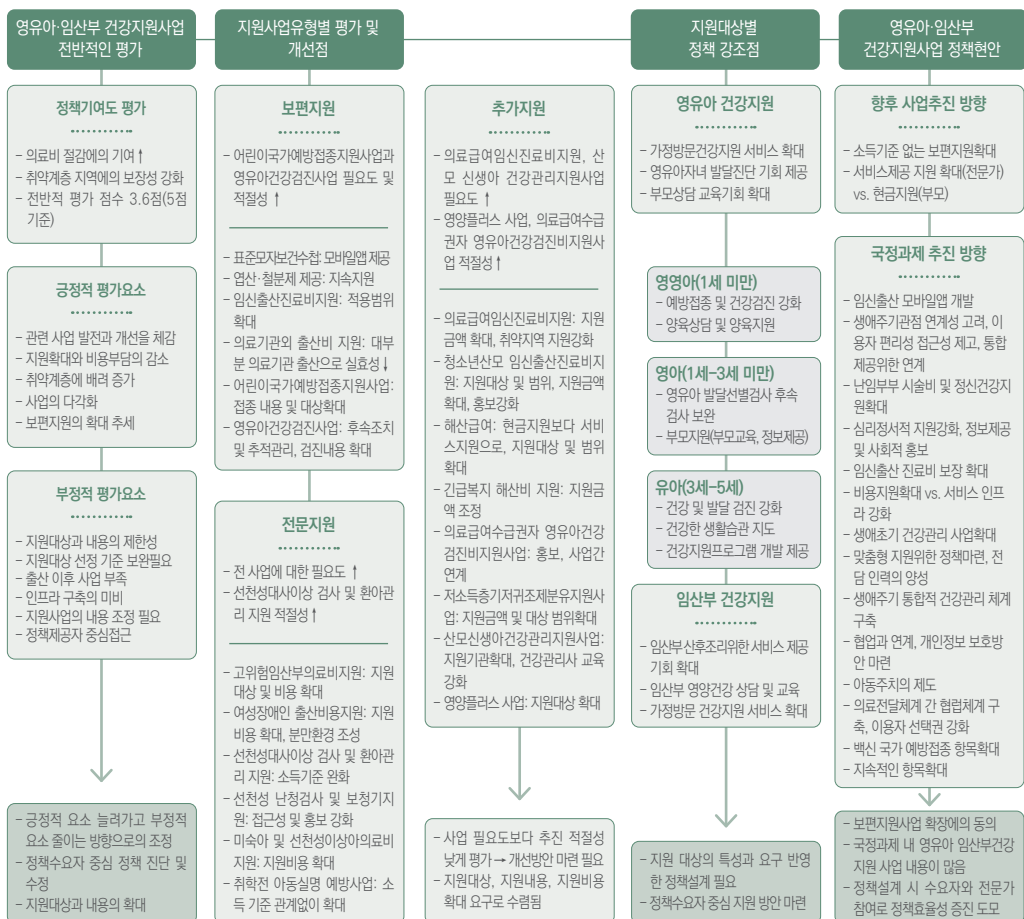
- 모자보건사업은 다음 세대의 국민 생존과 건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분야임.
- 특히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변화를 체감하면서 국민건강, 영유아 건강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영유아·임산부를 포함하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국민 건강관련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요자와 사업담당자, 관련 전문가의 입장에서 체감되는 성과와 평가, 개선요구를 수렴하여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선행연구·관련 법령 검토, 모자보건법 법 개정 내용, 추진 변화 파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 조사
- 정책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804명 대상 이용 현황, 만족도, 경험에 준한 개선요구 수렴
- 사업 담당자(보건소) 설문조사: 정책 전달체계인 보건소 담당자 258명 대상 조사 실시
- 전문가 대상 조사: 보건의료, 관련 선행 연구자 등 학계 및 관련 전문가 21명 대상 서면조사 실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결과



정책 제언

- 향후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생애주기 포괄적 관점, 가족중심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지원체계 간 협업, 사업 접근성 향상,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등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안들을 제언함.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심층분석 연구

조숙인, 김지현, 이상인, 송경희, 최효식, 송주현, 김재철, 김희수

배경 및 목적

- 지난 13년간의 한국아동패널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유아,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지원을 위한 과학적·통계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본 연구 목적이 있음.
 - 2008년 출생 패널 아동의 13년간 성장발달 진단
 - 미래세대 생애과제 시사점 도출 및 육아정책의 향후 방향 제안

연구방법

- 문헌자료 분석
-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심층분석: 기초분석,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등 주제별 분석법 상이
- 전문가 자문회의
- 외부 전문인력 활용: 외부 공동연구진 5인 구성
- 연구성과 세미나 개최 2회

연구결과

- 2008년(1차)~2020년(13차)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대상별/주제별 심층분석 실시

범주	주제	주요 결과
표본 이탈 (2장)	한국아동패널 표본이탈 분석	• 어머니의 특성이 아버지 특성보다 표본이탈에 더 많은 영향 미침. • 영아기 이탈집단: 가구소득이 낮고, 어머니의 우울이 높고, 고졸 이하의 비중 높음. • 유아기 이탈집단: 부부갈등 점수가 높고, 이사 경험이 많음. • 아동기 이탈집단: 양육스트레스, 일상스트레스, 문제행동이 높음. • 각 이탈집단 특성별 이탈 방지 계획 수립 필요
아동 (3장)	미디어와 사회성 발달	• 여학생일수록, 가정의 지각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관련 활동을 명확히 지도하는 부모 감독이 높을수록 '고-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작아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고-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 증가 • 미디어 이용 집단 유형에 따른 아동 정서사회성 차이: '고-유지 집단' 또래소외,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비속어 사용, 부모 미디어 중독 높음. '중간-증가' 집단은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 의식 높음.



범주	주제	주요 결과
부모 (4장)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	•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월평균 가구소득과 학력수준이 가장 높음. • 대체로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학업수행능력,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면에서 우수하고, 학업스트레스가 낮음.
가구 (5장)	가구 내 위험 요인과 신체·정 신건강	• 영아기, 유아기 모두 어머니 우울 '저수준 유지' 집단이 고소득이고, 부부갈등이 낮고, 주관적 건강상태 좋게 보고함. • 신체건강: 영아기 어머니 우울 '고수준 유지' 집단이 알레르기 발병률 높음. • 정신건강: 유아기 어머니 우울 '저수준 유지' 집단과 '저수준 증가' 집단이 '고수준 유지' 집단보다 행복감 높음.
정책 (6장)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	•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영향: 어머니 취업비율 증가, 가계 교육비 절감 •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가구 이용 높음. 초등돌봄교실 유경험 가구 사교육 이용 시간 짧고 비용 낮음. • 가족체험학습: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체험학습 유경험 집단이 학교이용만족도, 시간사용 만족도 전반적 행복감 높음. •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 집단이 엄격한 규칙, 지시적 분위기 수준 낮고(초등4), 친구지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수준 높고, 사이버폭력 경험 낮음(초등5).

정책 제언

• 결론

- 1~13차 한국아동패널 자료 바탕으로 심층분석 통해 추후 연구자들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대상-중심 접근을 중심으로 종단자료를 적절히 활용

• 시사점

- 패널 관리 및 정책 관련 시사점: 영아기 어머니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필요, 부부관계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필요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신규패널)을 위한 제안: 정책 지원과 정책 성과지표 검토 후 관련변인 조사 설문 에 포함, 다방면의 정책적 요소를 종단 연구에 포함, 매해 달라진 정책 내용을 보고서에 업데이트, 한국아동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간 중요변인 중복 측정, 신규패널 시작 시점에 모 우울 높은 가구 대상 선제적 지원 제공/과대표집 제안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미라, 유해미, 김문정

배경 및 목적

- 영유아에 대한 정책지원과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저출산과 육아부담은 여전히 큼. 이에 육아정책이 기관이 용과 현금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어 양육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육아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조직되고 양육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운영원리로 삼는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는 개별화된 육아욕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 육아공동체 참여로 양육초기의 육아부담과 고립감을 완화하고 돌봄공백을 해결하며 부모의 성장과 참여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영유아 부모의 육아공동체 참여에 대한 중앙차원의 종합적인 실태파악은 부족함.
-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의 공동체적 육아방식의 참여실태와 요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육아공동체의 개념, 유형, 이슈 검토.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주요계획의 전개, 주요사업과 유관사업을 검토함.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과 관련해 4개 지역의 정책을 검토함.
- 설문조사 및 분석: 0세~만 8세 자녀를 둔 부모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요구도를 파악.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유경험자 885명 및 무경험자 473명의 총 1,358명 대상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 사례조사 및 분석: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공동체 사례조사를 통해 공동체의 실제 운영상황을 이해. 중앙과 지방정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교차하여 특성별 4곳의 육아공동체를 선정해 운영자(부모대표), 참여부모, 지원자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함.

연구결과

- 육아공동체 참여의향 분석
 - 육아공동체 무경험자 대상으로 공동체를 통한 영유아 돌봄 활동의 의향조사 결과, 절반가량이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대상 정책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육아공동체 참여경험 분석
 - 영아 부모의 육아공동체가 육아 자원으로 큰 역할을 하는 곳으로 분석됨. 따라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 가구에 대한 육아공동체 지원이 요구되며, 관련해 2023년부터 0~1세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에 대한 가정



양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집단에 대한 공동체 지원이 강조됨.

- 육아공동체가 영유아에 대한 직접돌봄 이외에도 등하원 도움, 이음식 나누기 등의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기능을 하는 것이 확인됨.
- 영유아와 초등을 포괄하는 경우가 만족도나 추천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육아공동체 해체 이후의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성장에 따라 초등돌봄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육아공동체 활동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 분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체와 관련된 정책 조사 결과 다양한 공동체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조정하는 장(場)이 요구됨. 즉, 구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계, 부처 간 연계, 지역사회 내 협의체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강화로 제시 가능함.

정책 제언

- 육아공동체 활성화의 접근방향으로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 강화', '육아공동체의 변화대응과 지속가능성의 제고', '육아공동체의 자발성과 참여성의 강조'를 제시함.
- 육아공동체 활성화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개선 방안으로 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의 영유아 지원강화와 돌봄공동체 사업의 체계화 등 기존 중앙정부 사업을 확대·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그리고 육아 외 다양한 영역 간의 연계강화를 비롯해 지역협의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조정을 제시함.
- 현재 영유아 중심의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이 부재하며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가정양육 확대 및 육아공동체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영역별 세부과제로서 접근성과 관련해서 육아공동체에 대한 홍보 강화와 온라인 모임의 활성화 지원을 제시함.
- 지원조직과 관련해서 육아공동체에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할 것과 거점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운영을 제안하고 중간지원조직 간 협의기능 강화를 제시함.
- 공간과 관련해서 지역차원의 공동체 공간 조성을 강구할 것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육아공동체 공간의 마련, 주민 공용공간의 활용 및 관리 강화를 제시함.
-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인력풀의 활용 및 관리, 예산지원 시 가용범위 확대 등 참여자 권한 강화 및 편익성 증대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제시함.
- 수요자 특성과 관련해서 공동체의 성숙과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관이용 가구를 위한 보완모델을 마련하며 유연한 생활패턴을 지닌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행정 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연구

문무경, 김아름, 김용, 김영민

배경 및 목적

- 최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행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대부분 기능중심으로 조직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업무와 조직 구성, 인력 규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함.
- 본 연구는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행정조직과 업무를 분석하고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행정조직의 전문성, 자율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또한 새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같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협력 방안 모색

연구방법

- 문헌연구(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기본현황 및 시도교육청 행정조직 편제, 업무 등 관련 법령)
- 사례조사(시도교육청 총 7사례 분석)
- 설문조사(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담당 공무원 총 178명 참여)
-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결과

-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행정조직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됨.
 - 유아교육전담형(유아교육 단일과 독립형), 타 부서 사무와의 혼합형(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또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병합), 유아교육 사무 분산형(복수과 유아교육 분산형)
 -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별,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별 운영형태가 상이하며, 대부분 (유)초등교육(지원)과 내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일부 겸직)가 전담하거나, 장학사 및 주무관이 함께 배치된 형태임.
 - 담당 인력이 부족(약 80%; 매우 부족 29.3%, 부족한 편 51.1%).
-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행정업무와 기능 분석
 - ① 유아교육기획: 유아교육발전계획 수립; ② 유아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장학(컨설팅), 연구학교(유



- 지원) 운영 등; ③ 인사: 정원 관리, 전보, 징계, 복무 등; ④ 비정규교육 지원: 방과후과정 지원, 안전교육 등;
- ⑤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지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유아 NEIS 운영
- 유아교육 담당부서 업무량이 과중(80.8%), 업무량 발생이 가장 많은 1순위 업무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25.8%), 타 부서 협조 관련 업무(급식, 공립유치원 신증설, 교육공무직 관련)(20.2%)임.
- 본청에서 폐지하기를 원하는 업무 1, 2순위 모두 유치원 안전점검 총괄이며, 교육지원청의 경우 폐지 또는 타 부서로 이관하기를 원하는 1순위 업무는 유치원 특수교육지도(20.5%)이며, 다음 순으로 유치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18.0%),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18.0%)임.
- 행정조직과 기능 관련 지원 요구
 - 사례분석 결과, 유아교육 담당 행정조직의 유형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은 대상중심으로(즉, 유/초/중) 독립된 과에서 전담하는 것을 선호함.
 - 유아교육 전문직 인력 확충(40.4%), 유아교육 업무의 다른 과/팀 분산을 통한 업무량 감소(17.4%), 유아교육 전담을 위한 독립과 설치(14.6%)
-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연계협력 실태
 - 본청과 교육지원청 모두 유아교육비, 급식비, 돌봄 예산 등 비용 지원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음.
 - 연계협력이 필요한 항목으로 돌봄서비스 연계(4.6점/5점 만점), 원아 건강·안전 지원(4.33점), 예산 협력(4.15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3.93점)가 높게 나타남.

정책 제언

-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지원 행정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 인력배치 기준, 정원 관리, 교육전문직 정원 책정, 유아교육 담당 조직 유형과 업무 조정,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지원 역할, 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 기획 기능 강화
- 유보통합 대비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의 연계협력 방안
 - 연계협력 사안 발굴 및 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가칭) 유보통합 사무 이행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교육청 조직 개편과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인력 확충,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산하의 한시적 특별 조직 구성 운영, 교육청 유아교육 정책 기획자 대상 연수, 교육청-교육지원청-유아교육진흥원 역할 분담 체제 개선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유해미, 구자연, 김문정

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지위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로 다양화되어 이들의 근로여건과 운영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어린이집 연장, 보조, 대체교사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과제를 도출하되, 원활한 인력 수급, 일자리 질의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제시함.

연구방법

- 보육교사 유형별 이슈 및 쟁점과 현장의 요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집담회를 실시함.
- 어린이집 연장반교사(담임교사 겸직 제외) 총 432명, 어린이집 보조교사 총 490명, 어린이집 대체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총 304명, 어린이집 원장 총 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장반교사 4인, 보조교사 7인(영아반 4인, 누리과정 3인), 대체교사 3인, 담임교사 4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
- 지방정부의 특수시책 또는 시범운영 총 6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함.

연구결과

- 어린이집 연장반교사 운영 실태 및 개선요구
 - 연장반교사가 현재의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이 희망하는 시간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8.7%와 85%로 조사됨.
 - 연장반교사가 '통상적으로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2%에 달하고, '통합반을 보육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6%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비율은 직장어린이집에서 60%로 높게 나타남.
 - 연장반교사의 연장보육 질 제고를 위한 필요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장반 편성기준 개선'이 평균 3.9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연장보육 수요에 부합하는 연장반교사의 채용'이 3.83점, '16~17시 업무분장의 명료화' 3.75점, '기본반 아동의 하원시각 준수' 3.72점 순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운영 실태와 개선요구
 -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직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96.1%로 조사됨.



- 보조교사의 업무별 비중은 5점 척도 기준으로 '급·간식 배식 및 정리'가 평균 4.2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양치, 낮잠, 화장실 등 생활습관 지도' 4.03점, '담당 학급의 보육과정 보조' 3.93점 순으로 조사됨.
- 보조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도는 5척 척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지급'이 평균 4.20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휴가 등)' 3.86점, '업무내용 명문화' 3.76점 순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운영 실태와 개선요구
 - 대체교사의 근무만족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출근시각과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대체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도를 5척 척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통비 추가 지원'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정책 제언

- 주요 방향 및 전략: 근로여건의 개선과 업무내용의 명료화, 전문성 제고와 교육 수요 반영, 지원기준의 개선과 지원방식의 다양화, 원활한 구직과 채용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사업의 개선과제: 단독근무 시 안전관리 강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강화, 6시간 연장반교사 지원기준 신설, 연장보육시간과의 부합성 제고
- 보조교사 지원사업의 개선과제: 업무내용 명료화(부적합 사례 보완/보육도우미 지원기준 신설), 보조교사의 업무내용 구체화와 부적합 사례 보완 명시, 6시간 보조교사 지원기준 신설, 담임교사와의 협업 강화
-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개선과제: 근로여건 개선(급여체계 개선, 업무내용 명문화), 대체교사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4시간 대체교사 지원기준 신설, 비담임교사 지원기준 신설), 대체교사 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한 권역별 지원체계 운영지원, 대체교사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최윤경, 조숙인, 이혜민, 김정현, 윤재석

배경 및 목적

- 취학 전~후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대상의 교육과 돌봄의 실질적인 연계와 통합적 접근은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음.
- 이 연구는 분절되어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기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도록 하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동’은 0~12세(출생후~초등학령기), ‘돌봄서비스’는 공적기반을 중심으로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신생아기 건강관리에서부터 영유아기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육과정 및 방과후돌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이용, 초등학령기 아이돌봄서비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취학 전~후 돌봄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의 기본계획과 법령 고찰
- 정책분석: 다부처 사업으로 운영되는 아동돌봄 정책·사업(10개)의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 목적·관점·기능·대상의 통합성,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상용성·효과성·연계성을 주요 지표로 함.
- 데이터 분석: 아동 연령별 돌봄 수요와 서비스 이용, 돌봄 공백과 단절에 대한 수요자 부모 및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수요자 부모 FGI 면담조사

연구결과

- 취학 전~후 연령별·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 아동돌봄 정책사업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 (정책분석) 아동돌봄의 주요 정책/사업을 아동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연속성과 접근성, 연계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10대 사업 모두 연계성 또는 통합성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아이돌봄, 시간제돌봄, 다함께돌봄, 공동육아 등 대표적인 가정육아 지원서비스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게 나타남. 초등돌봄(초등돌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은 제도 설계의 특성상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설문조사) 전국 인프라를 시설/기관을 중심으로 갖춘 ‘국가 예방접종’과 ‘어린이집·유치원’은 높은 인지도와 이용률, 이용 만족도와 향후 이용의향(이용 수요)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법령분석) 13개 아동돌봄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와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안(2개) 고찰
 - 개별법으로서의 정책/사업 추진체계와 실행목표의 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돌봄서비스 간 연계와 공유, 협력의 법적 근거나 조항이 부재. 발의안은 특별법의 형태로 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 조항이 결여되거나 실질적인 집행력이 반영되지 않는 기구로 제시되는 제한점을 가짐.

정책 제언

- 법적 기반
 - 1단계: 현행 돌봄법령 정비-교육부 방과후돌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통합운영과 연계협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및 현행법령(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기본법)의 소관부처 변경
 - 2단계: 통합 법률 제정

목적, 정의규정, 이념 및 기본방향, 행정계획, 거버넌스, 전달체계, 돌봄과정, 돌봄인력의 자격 및 교육훈련, 시설설비, 비용부담 및 지원, 관리감독, 위임위탁, 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돌봄서비스 운영의 연계협력의 조항을 담음.
- 거버넌스 구축
 - 온-오프라인 연계 통합 플랫폼이 구축으로 관련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가 동일한 채널을 통해 파악되고 진행되도록 함.
 - 아동통합돌봄센터가 중앙 시·도-시·군·구 조직을 갖추고, 중앙 및 시·도 센터는 지원기관으로, 시·군·구 센터는 해당 지역의 아동돌봄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 교육청과 지자체 및 민간 협력을 아우르는 (가칭) 지역통합돌봄위원회 조직
- 아동돌봄 통합정보플랫폼
 - 1) 가용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실시간 검색과 대기신청 및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2) 공·사, 민·관의 정보와 돌봄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플랫폼으로서의 개방성과 확장. 3) 돌봄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상담 및 놀이치료 등 서비스 이용까지 연계, 4)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등하원알림서비스 확대와 자녀연령에 맞는 양육정보의 제공, 5) 지자체별로 특화된 돌봄서비스 앱과 민간영역의 지도 및 유관 매칭 서비스와도 연결되는 개방성 확보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나영, 최윤경, 김희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과제는 5개년 연구로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연속적으로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2022년은 새 정부가 출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 문제인 정부의 육아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여 향후 육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할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는 2021년 수행된 육아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지난 4년 동안 시행된 정부의 육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중점추진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연구방법

- 통계자료, 법령, 정부발간자료(각 부처 업무계획, 보도자료 등)를 분석하고, 1~4차년도 과제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달성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정책들의 성과분석 및 계량분석을 통한 정책의 성과분석
- 전문가 및 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부모, 원장, 교사 등) 육아정책 수요자 대상 심층면담조사 실시

연구결과

- 육아정책 성과분석: 정책총괄평가
 - 부모의 경우, 지난 정부의 현금-서비스-시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큰 정책으로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이 각 28.0%, 22.1%로 높게 나타났으나, 동시에 성과가 가장 낮은 정책으로도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아동수당'이 각 18.9%, 10.9%, 9.4%) 나타남.
 - 전문가의 경우,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크게 보인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
 - 부모의 경우,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중요도가 높은 국정과제로, '의료비지원'과 '건강지원'이 중요하다



는 응답이 70% 내외로 나타남.

- 전문가의 경우, 향후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 범주로는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이 6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7.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5.4% 순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현금 지원의 선별/보편지원 방향성 확립: 현금지원의 경우 적절한 규모가 지원될 때 만족도가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
- 정책성과의 집중 관리: 인지도가 높지만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정책을 우선 파악하여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성과관리가 필요
- 자녀돌봄 시간지원 사각지대 감소 및 정책 활용도 지속적 제고: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 필요
- 육아지원정책 관련 데이터 기반화 및 정보수집 체계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요구가 높게 나타난 바, 포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아동학대 정보 수집의 차원이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다양한 노동유형의 양육 부모 지원 위한 맞춤형 정책 강화: 부모의 직접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위한 절대적 시간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시간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해진 노동유형을 고려해야 할 것
- 중앙-지방 연계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추진: 보육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포괄적 지역분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개념을 법제화 하여 향후 보육정책 및 사업수립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 비중과 편성을 배분하여 보육재정의 효율화를 달성
- 맞춤형 보육컨설팅 제공 통하여 보육 질 제고 강화: 소규모, 농어촌 등 여러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고려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제공
- 인구유입 정책과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연계: 인구소멸 위기 지역 혹은 농촌으로의 청년유입 사업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 및 정책의 경우 단순하게 일자리 사업이나 정착금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유입 청년이 정착하여 이후의 삶을 지역에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산·양육 어려움이 없는 환경 조성 방안 연계 수립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이정원, 이재희, 김자연, 우석진, 김태우

배경 및 목적

- 5개년 연속 연구의 5차년도 연구로, 육아가구의 소득 및 지출, 육아서비스 이용 관련 데이터 구축을 통해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를 제공함.

연구방법

- 2022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표본을 제외한 영유아가구 표본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함. 2016년생 이하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 출생 아동에 대한 신규표본을 구축함.

연구결과

- 'KICCE 소비실태조사(V)' 조사 결과
 - 5차년도 전체표본 수는 1,730가구(아동 2,395명)이며, 추적조사 성공률은 89.8%, 대체표본 151가구, 신규 표본(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 출생아 가구) 254가구임.
- 2022년(5차년도) 육아가구 소득 및 양육비용 실태
 - 2022년 육아가구의 소득은 500만5천원, 지출하는 총 양육비용은 127만3천원으로 4차년도(127만6천원)보다 다소 낮으나 2018년 1차년도 조사 시작 이후 거의 가장 높은 수준임.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65만2천원이며, 생활비 대비 19.4%에 해당함.
-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2022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률은 77.4%로 4차년도 대비 하고, 코로나19로 인반 반일제이상 기관 미등원 일수는 평균 21.2일이었음.
 - 시간제사교육 중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21.9%로 가장 높고, 방문형학습지는 12.0%, 문화센터 7.6%,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3.3%,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2.2%, 개인 및 그룹지도 1.9% 순으로 나타남.
 - 비대면형 시간제사교육 이용률은 4차년도(2021년)와 유사한 수준임.
-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11.9%의 가구에서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4차년도 12.3% 대비 하락함.
 -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경은 6.8%, 이용시간 증가는 13.1%, 비용 증가 경험은 5.8%임.



-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은 부모교육 10.2%, 부모상담 15.0%, 육아멘토 1.0%임.
- 자녀양육 지원 및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현금지원(42.4%), 기관보육·교육서비스(18.8%), 개별돌봄서비스 개선(13.9%), 육아휴직 등 돌봄시간 지원(11.6%)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됨.
 - 아동수당 수혜율은 99.9%로 가장 수혜율이 높은 비용지원으로 나타남.
 - 수혜경험 있는 비용지원 중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4.4점), '보육료 지원(4.1점)', '유치원교육비 지원(3.9점)', '양육수당', '영아수당'이 각 3.7점 순임.
-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 결과
 -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육아가구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 결과, 가구소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고 생활비 중 식비는 3차년도 이후 큰 폭으로 상승, 교육보육비는 가구소득에 따라 증가, 보건의료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1~4차년도에 걸쳐 식비의 생활비 중 비중이 지속 증가, 저소득 가구가 특히 생활비 중 식비 비중이 높음.
 - 자녀수가 많을수록 식비, 주거비, 교육·보육비, 완구 및 도서 관련 지출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함.
- 코로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
 - 코로나 확산은 자녀 양육비용을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확산이 10% 증가 시 자녀양육비용은 0.4% 감소함.

정책 제언

- 육아지원의 생애주기적 접근 강화, 양육형태별 육아지원의 균형적 발전 모색, 가구특성별 맞춤형 육아지원 강화를 정책지원의 방향으로 제안함.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I)

김은영, 강은진, 김혜진, 전홍주, 최명희

배경 및 목적

-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를 3년차(2020~2022년)로 기획함.
-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의 3년차 연구로 3년간의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유아교육 혁신 방향에 따른 현장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지속적인 종합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정책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설문조사
 - 전달체계 담당관 대상 설문조사: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사)과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17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 현장 교원 대상 설문조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 1,060명, 교사 1,068명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초등학교 1학년 부모 1,000명
- 사례조사: 유치원 4개원과 어린이집 46개소[원장(감) 총 8명, 교사 총 22명]를 대상으로 2회 실시

연구결과

- 2019~2021년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 해마다 중점을 둔 사업에는 차이가 있으나, 지난 3년간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10개의 지원사업이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물리적 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됨.
 -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9년에 '수업 참관 및 피드백',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 '시범기관 선정 및 운영'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20년 이후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 '연수(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됨.
-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



- 조사대상 부모는 자녀에 대해 성격과 태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사회성, 학업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기관의 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원장과 교사 모두 일과의 융통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원장은 소통하는 조직문화, 교사는 물리적 환경의 개방성 점수가 높았음.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부모의 변화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은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으며, '놀이 중심 교육철학'이 가장 낮았음.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유아의 변화에 대한 원장의 인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는 주도성 증대가 가장 높았음.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유아의 변화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함.
- 개정 누리과정을 재개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원장과 교사 모두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 재강조'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은 '현재 개정되고 있는 초·중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미래사회 역량의 기초 형성' 순으로 나타남.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적 요구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개년 조사가 일관되게 원장과 교사 모두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정 누리과정 운영 사례
 -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과 교사들은 공통으로 유아와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 인식함. 반면에 반면 개정 누리과정의 한계로는 초·중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교육목표와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교사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편차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정책 제언

-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로는 유아의 미래역량 제고, 교사의 자발적인 전문성 제고 노력,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직문화의 변화이며, 과제로는 부모의 유아 및 놀이에 대한 이해 제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여건 개선, 사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 극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 달체계 간 협력 체계 구축,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중장기 방안으로는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제 개편, 학교로서의 위상 정립 및 의무학제 편입을 제안함.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배운진, 이정림, 김아름, 이혜민, 양성은, 장혜림, 차유림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가정 내 양육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육아지침서 개발과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돌봄취약·위기가정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된 연속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이며,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함.
- 가정위탁을 통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의 양육역량을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지원을 위해 첫째, 위탁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실제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가정 지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둘째, 위탁부모의 양육역량을 기르고 고유한 이슈를 가진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육아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조사연구: 위탁부모 283명 대상 설문조사 및 비혈연 위탁부모 33명 대상 면담 실시
- 가정위탁 관계자 간담회: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종료아동
- 전문가 자문회의, 육아지침서 개발 연구진과의 정기회의
- 정책토론회

연구결과

- 위탁부모의 양육 특성
 - 위탁부모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건강상태는 위탁부모가 조부모인 경우, 그리고 저소득 집단에서 취약하게 보고되었음.
 - 양육역량 중 양육효능감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학령기 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의 양육역량은 영유아기 위탁부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 유아를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다른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보다 '위탁아동과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



담'이 크다고 응답하였음. 조부모는 다른 위탁부모들에 비해 '위탁아동과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음. 또한 비혈연 위탁부모는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택하였음.

-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51.6%), 다음으로 '위탁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32.5%가 응답하였음.
- 위탁부모 양육 지원
 -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 자녀양육 방법, 위탁아동의 초기 적응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자녀양육 방법,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 등의 순으로 꼽아서, 예비교육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위탁부모를 위한 자조모임의 활성화, 전문적 양육코칭 지원도 요구됨.

정책 제언

-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 방안
 - 위탁부모의 심리적 건강 지원 강화, 개별 위탁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부모교육의 내용체계 마련, 육아지침서 활용, 물리적 환경 지원
- 위탁가정 지원체계 개선 방안
 - 육아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위탁아동 심리치료 확대, 장애아동 특성 고려한 다양한 지원 마련
 -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협력, 장/단기 가정위탁 구분 및 정책 이원화, 가정위탁 종결 과정의 개선
 - 위탁가정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개선, 행정적 지원의 일관성 및 예산지원의 안정성 확보,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 가정위탁제도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 위탁부모 정의규정 마련 및 자격 법제화, 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용의 법제화, 장기 위탁아동 보호·양육을 위한 제도 개선
 - 친부모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위탁부모의 후견권 강화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Ⅰ): 임신·출산 관련 인프라 중심으로

이재희, 김동훈, 김종근, 엄지원, 윤소정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생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분야 인프라 현황 및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별 불균형 진단 및 육아인프라 수요 예측 등을 통해 향후 인적·물적 인프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함.

연구방법

- 임신·출산관련 정책 동향자료 조사
- 공간군집분석을 통한 인프라 취약지역 판별
- 전국 25개 권역 600명 산모 대상 조사 실시
- 지자체 임신·출산관련 인프라 정책 사례 조사
- 임신·출산 인프라 관련 정책공모전 개최

연구결과

- 임신·출산 실태 및 관련 인프라 현황
 -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화성시(6,842명)였으며,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울릉군(30명)으로 나타남.
 - 분만을 받는 기관 수, 산부인과 전문의 수,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만 병실 및 병상 수, 신생아 병실 및 병상 수는 세종, 제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부족하였음.
- 임신·출산 인프라 지원 정책과 사례
 - 중앙정부의 임신·출산 인프라 지원정책으로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지원 사업 등이 있음.
 - 지자체 사업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교통 및 주차지원, 검진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이 있음.
- 임신·출산 인프라 이용 실태
 - 실태조사 결과 읍·면지역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임신·출산 인프라 지역별 구조와 진단
 - 분만 가능 병원 전문의 접근성 점수는 서울-인천, 경기 남부, 부산과 인근 지역, 대전·세종과 인근 지역, 강원



강릉시, 동해시 지역에 hot spot을 이루고 있음.

- 소아청소년과의 접근성 점수는 서울-인천, 경기 남부, 대구, 대전 서부, 세종 등 지역에서 hot spot을 이루고 있음.
- 응급 소아 병동의 병상에 대한 접근성 점수는 임계거리가 30km인 경우 서울-인천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 광주와 인근 지역, 전북 전주시와 인근 지역, 강원 원주시와 인근 지역, 강릉시와 동해시 인근 지역, 경북 안동시와 영주시 인근 지역에서 hot spot을 이룸.
- 임신·출산 정책 수요
 - 추가출산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출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의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출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공모전 실시 결과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임신·출산 정보인프라 관련 등의 정책이 주로 제안되었음.

정책 제언

- 필수 공공의료(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소아응급실) 강화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중심으로 한 공중보건장학제도 확대
- 출산가구 숙박·교통 지원 및 모자 응급 이송체계 개선
 - 분만취약지역의 안전한 분만 전 숙박지원
- 산후관리지원제도 및 인프라 공급 정책 개선
 - 보편적 산후조리 바우처 제공
-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격차 해소 방안 연구(I)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조혜주, 정윤경, 심영규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돌봄현장, 교육체계의 붕괴는 가장 취약한 곳과 사각지대에서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가 경험하는 교육과 보육, 돌봄의 결핍과 공백, 사각지대가 낳는 어려움과 누적되는 격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자료는 부족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2년간 누적된 2022년 시점에서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학습 및 자녀양육가구의 돌봄과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를 살펴봄.
 - 1차년도(2022년)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영유아 개인, 가정, 기관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함.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분석
- 심층면담(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8명, 부모 10명)
- 영유아 발달 검사(만 2세반 영아 100명, 만 5세반 유아 100명)
- 온라인 설문조사(발달검사 참여 영유아 부모 200명, 교사 40명)
- 전문가 자문회의(4회)

연구결과

- 영유아의 인지능력은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 평균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언어이해 지표에서 만 2세반 영아에 비해 만 5세반 유아가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어 만 5세반 유아의 언어이해 인지능력에 있어 격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평균수준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문항과 영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평정하는 문항에서 교사보다 부모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인지발달에 있어서 영유아 개인 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에서 특이한 점이 나타나지 않음.
-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가정이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였고, 외벌이 가구는 휴원 기간에도 긴급돌봄이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의 긴급돌봄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맞벌이 가구의 팬데믹 영향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정책 제언

- 생애초기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 특히,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들의 경우, 발달의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격차 요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영유아 시기의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특성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유아기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Ⅰ):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박창현, 문무경, 도남희, 조진일, 계보경, 윤지연, 서희전, 김동심, 박주연, 박남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상급학교에서 논의된 미래교육, 미래학교 담론을 살펴보고, 보다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로의 개편을 고려하며 미래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영유아학교의 모델을 그려보는 것임. 미래학교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에의 적용점을 살펴보고, 유보통합을 고려한 맥락으로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한 미래학교 정책 및 제도, 공간혁신 및 재구조화 개선 사업, 디지털 및 원격수업, 기후환경 대응 등에 대한 사업, 정책, 학술연구 분석,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및 문헌조사 실시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1,240명을 대상으로 미래 영아학교의 공간 재구조화, 디지털환경, 기후변화 대응 정책요구를 파악
- 미래환경대응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35명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 국내외 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 사례를 찾아 제도를 고찰하였으며, 현장 방문 및 면담을 통하여 미래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함.

연구결과

- 국내외 영유아교육기관 공간 현황
 - 전체적으로 공립유치원이 노후화된 시설이 30년 이상 2,426개, 40년 이상 1,351개로 많음.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설립이 늦은 경향으로 3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비율은 적은 편임. 해외에서는 공간 설계 시 기본 방향 설정과 세부적인 공간별/영역별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현장에 제공함.
- 국내외 공간혁신 사례 분석
 - 국내외 공간혁신 사례를 살펴보면, 녹지활용, 부모자녀를 위한 카페 설치, 연결성과 개발성 강화, 중앙 정원 확보, 복도공간의 학습공간화, 유니버설 디자인 강화, 탄소중립 환경 설계, 옥상놀이터,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설계하는 그리스마트 모델 등이 있음.
- 미래 디지털 놀이공간 분석



- 에듀테크를 통합한 유아교육 공간 혁신 방향, 유아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공간, 학습공간과 테크놀로지의 효과적인 통합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음. 국립 1개 사립 3개의 유치원과 1개의 어린이집의 사례를 분석, 디지털과 유아, 공간의 구성, 공간의 개발, 공간의 활용을 범주화하여 분석함.
- 전문가 의견 조사
 - 미래 영/유아학교에서 가장 영향을 미칠 요인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유아디지털 환경변화, 기후변화 순이었음. 미래사회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았음. 미래학교 상은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학교였음. 이를 위해 국가 및 교육청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았음. 정책우선순위 교육목표로 역량 접근 추구,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이었음.
- 1,240명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조사
 - 현재 교육·보육공간의 개선, 미래교육,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공간의 개선이 필요, 건물배치, 규모, 층수, 일반 공간의 개선 등에 높은 요구도가 있었음.

정책 제언

- 미래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
 -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미래 영/유아학교, 미래사회의 인재, 시민을 양성을 위한 공교육/공보육기관으로서의 미래 영/유아학교 모델이 제안됨
- 공간 재구조화 관련
 -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공간 재구조화 사업 맞춤형의 사용자 참여형 설계 매뉴얼 및 프로세스 개발, 보급, 국가 및 지역 단위 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집 개발 및 보급, 전문기관에 공간 혁신 전문 부서 설립, 교직원 대상 연수, 다양한 시설모델 개발 및 시설기준 현실화 방안 제안
- 디지털, 스마트 관련
 -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무선망 확대, 우수한 기기와 콘텐츠 개발, 영유아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가정연계 교육강화 등
- 기후, 그린, 생태
 - 모든 영/유아학교를 탄소중립 그린학교화하기(교육과정과 하드웨어 구축)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Ⅰ):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강은진, 권미경, 박창현, 최윤경, 박혜원, 최일선, 이경옥, 김형미, 양성은, 김영아

배경 및 목적

- 1차년도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교사들이 조기 선별해 필요한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교사용 조기선별 검사 도구와 교사지원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장애 진단을 받을 개연성이 또래보다 높은 영유아를 '장애위험 영유아(children at risk)'라 정의

연구방법

- 문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실태 및 요구 조사: 어린이집 713명, 유치원 501명 총 1,214명
- 장애 및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사업 사례조사
- 교사용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선별 도구 개발을 위해, 구성요인선정-문항개발-예비연구를 실시
- 교사용 지원 자료는 문헌연구, FGI 외 개발방향과 활용방안 수립, 교사안내자료 초안 작성, 현장 교사 검토 및 수정, 전문가 및 관리자 검토 및 수정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 작성
- 정책실무협의회, 정책포럼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연구성과 확산 및 정책화 노력

연구결과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요구 조사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경험은 31.1%, 장애위험 영유아 교육·보육 경험은 40.4%에 해당됨.
 - 장애위험 영유아 담당 유경험 교사 491명은 장애위험으로 판단한 근거는 같은 반 또래와의 관찰비교함. 장애 위험으로 의심될 때 가장 먼저 동료교사나 원장 및 관리자와 상의(69.5%)함. 교사들은 특히 장애위험 영유아와의 관계형성 및 소통 방법 부족(20.8%)을 애로점으로 꼽았으며, 부모와의 갈등발생우려(20.2%), 기관 내 별도인력 부족(18.9%)을 어려워함.
 - 교사들은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인력, 활동비, 컨설팅, 전문가 배치 등), 전문기관



과의 연계체계 구축, 유치원/어린이집 차원의 지원이 필요성을 인식함.

- 교사용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선별 도구 개발
 - 개발방향: 보육·교육과정 일과 운영과의 연계, 발달영역 중심, 조기선별 가능성 제고(12개월~만 5세까지 영유아), 교사 평정도구로서의 적합성 확보, 검사결과의 효용성
 - 예비조사: 교사 232명을 선정해 교사 1명당 2명의 영유아를 평정하게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1~5세 영유아 395명의 자료를 수집함.
 - 발달영역별 전체 문항의 신뢰도와 각 문항의 문항-전체 상관을 검토한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97,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97~.98 범위로 우수함.
 - 예비조사결과, 총 376개 문항을 개발함. 12~17개월 48개, 18~23개월 49개월, 24~29개월 50개, 30~35개월 52개, 3세 59개, 4세 49개, 5세 59개 문항으로 구성함.
- 장애위험 영유아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자료를 구성함: 교사들에게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핵심 지식과 장애 위험 선별과정에 대한 정보, 부모상담,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교수지원 및 행동지원 내용을 제공함.

정책 제언

- 사각지대 없는 “정책 이음” 출발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모니터링 체계 보완(영유아건강검진 홍보 강화를 통한 조기선별 기반 구축,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선별평가 사후관리 내실화, 심화평가권고 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대상 확대, 입학(소) 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제출 시스템화) 및 영유아 발달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달체계 간 연계
- 장애위험 영유아 모니터링을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량 강화: 교사안내자료 보급,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문가 방문 1:1 코칭 지원
- 장애위험 영유아 담당 교사의 역량 지원 방안: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내 장애 영유아 관련 교과목 신설, 현직교사 연수에 장애 및 장애위험 영유아 교수학습 및 놀이지원 교과목 포함
- 발달 러닝메이트(LeaR·nning·mate) 팀/센터의 코디네이션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기반 구축
-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기 위한 체질 개선: 장애 영유아 등록 및 의무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 장애위험 영유아 반배치 시 보조교사 지원, 장애 영유아 배치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빅데이터를 통한 장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화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 (한국아동패널 II)

김지현, 도남희, 배윤진, 김혜진, 강규돈, 장현진

배경 및 목적

-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II)」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최초의 신생아 대상 장기종단 연구로서 2008년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15년간 진행되고 있음.
-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II)」는 매년 축적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 학술적, 정책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아동의 발달적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이고 귀중한 자료로 자리 잡았음.

연구방법

- 현재 공개된 1차부터 11차까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표된 논문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활용현황을 분석하였음.
- 중학교 2학년 설문 확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중학교 2학년 시기 학교설문 보완을 위하여 교사 대상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14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고, 15차 조사를 진행하였음.

연구결과

- 15차년도 조사(2022, 중학교 2학년)를 실시하였음.
 - 2022년 15차년도 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가구는 1,304가구(아동 1,293명)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2022년 조사 유효표본 1,521가구 대비 85.7%, 작년조사 수인 1,348명 대비는 96.7%의 유지율을 나타냄.
- 14차년도 조사(2021, 중학교 1학년)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함.
 -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 수는 보호자 기준 1,334가구(아동 1,328명)임.
 - 가구 특성은 평균 가구원수 4.58명, 자녀수 2.22명, 월평균 소득 640.73만원, 월평균 가구지출 510.63만원임.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일상생활 특성은, 평균 신장은 161.63cm(남학생 평균 164.15cm, 여학생 평균 158.99cm), 평균 체중은 55.15kg(남학생 평균 58.99kg, 여학생 평균 51.13kg)으로 나타났음.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학습관련 특성은 학업 스트레스는 낮은 편이었으나 학교성적 스트레스에서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 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학교성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 부모의 개인 및 부부 특성은 어머니 평균연령 45.06세, 아버지 평균연령 47.60세로 나타났으며, 초혼 유배우 93.60%, 재혼 유배우 1.27%, 이혼 4.02%로 나타남.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사교육 특성은 사교육을 이용하는 정도는 88.28%(방과후 학교 제외)로 높은 편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거나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사교육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음.

정책 제언

-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와 지원
 - 건강습관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나타나며, 남학생의 인스턴트 음식 및 카페인 음료 섭취가 높고, 여학생의 수면시간이 높게 나타남.
 -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도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SNS 및 엔터테인먼트 이용으로 이용정도가 달라졌으며, 남학생은 과학에, 여학생은 국어 및 영어 과목에 학업이해도를 높게 평가함.
-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점차이 이해 필요
 - 14차년도(2021년) 조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을 보호자가 측정하고,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아동이 스스로 측정하였는데, 부모와 아동이 측정한 고위험사용군 비율이 각각 44.58%, 1.77%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남.
 - 부모응답은 미디어기기에 대한 행동적 중독에 초점을 두고, 아동응답은 스마트폰에 대한 심리적 중독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수치이며, 부모와 아동간의 관점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점차이 이해 필요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피해응답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이러한 수치의 의미를 파악하여,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대응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2

이정림, 배윤진, 김자연, 송신영, 조경진, 장현진, 이기재

배경 및 목적

- 2008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매년 추적하는 종단 연구인 한국아동패널 이후로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진 임신·출산 및 육아지원정책에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종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기존 한국아동패널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하지 못했던 제한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구축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저소득과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음.
- 또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임부와 태아를 패널로 모집하여 임부와 태아의 건강과 환경요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패널 데이터가 설명할 수 있는 정책적, 학술적 이슈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자 하였음.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목적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음.
 -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 기관의 보육 및 교육 환경, 지역사회 환경, 육아지원정책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횡단 및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 및 영아 발달검사와 가정환경검사에 관한 매뉴얼 및 관련 연구 등 고찰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 조사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조사원 교육은 1차년도 조사에 관한 개요 소개, TAPI 수행 실습, 영아 발달검사(K-DST) 및 가정환경검사(K-IT-HOME) 내용에 대한 소개와 검사수행 절차에 관한 교육 및 실습으로 진행되었음.
 - 조사 진행 상황에서의 경험(조사 진행 관련 특이사항 등)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조사원 사후 간담회를 개최함.
- 기초조사 I, II를 임부 모집 시와 임신 후반부인 임신 32~37주차에 각각 시행하여 임신 및 태아 특성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 에디팅 및 클리닝 등을 거친 후에 기술통계 분석 실시
- 1차년도 조사 실시
 - 먼저, 2022년도에 패널 아동이 생후 1개월이 되는 시점에 산모 대상의 우울 문항을 온라인 조사로 수행
 - 다음으로, 패널 아동이 생후 4개월 되는 시점에 가구방문을 통한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



view) 방식의 광범위한 대면조사 실시 및 가구방문 1~2주 전에 출생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패널 관리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및 발달검사(K-DST) 결과 제공

연구결과

- 2022년도 1~8월 출생아를 가진 3,366명의 임부와 3,435명의 태아(쌍태아 58가구) 패널 구축
 - 전체 3,366명 임부 중 다문화 가구 임부 95명, 저소득 가구 임부 72명 모집
- 조사 자료에 대한 변수명, 코드북, 도구프로파일 및 사용자 지침서 생성
- 기초조사 I, II에서 수집된 자료의 결측치(missing data)와 무응답자 조정 등을 통한 가중치 산출
- 기초조사 I, II, 생후 1개월 우울 문항 조사, 생후 4개월 어머니 및 아버지 대상 조사, 주양육자 대상 조사 등 총 6종의 조사 자료에 대한 에디팅 및 클리닝 작업 및 패널 자료 구축
- 기초조사 I, II 자료 분석 주요 결과
 - 만 25세 미만 임부의 경우에는 계획 임신 등 임신에 대한 준비 및 임부와 태아에 대한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임부는 산전 검사를 받은 비율이 고소득 가구 집단에 비해 낮았고, 영양제 복용률, 식품첨가물 함유 음식이나 레토르트 식품 섭취 빈도가 높은 것 등과 같은 임부 건강관리는 전반적으로 소홀한 경향으로 나타났음.
 - 다문화가구의 임부는 산전 검사, 예방접종 등 산전 관리에 있어 비다문화 가구 임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 제언

- 만 25세 미만 임부를 위한 임신 준비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및 활성화를 통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함.
- 저소득 가구 임부와 그 가족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함으로 나타나서 선진국처럼 저소득 가구의 임신부를 포함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조기드림스타트 사업 기반 구축 마련을 제안함.
- 다문화 가구 임부를 고려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임을 제안하며, 다문화 가구 임부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개별 상담 프로그램 및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의 지원 방안을 제안함.

유치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 마련 및 매뉴얼 개발



김동훈, 김문정

배경 및 목적

- 새롭게 정보시스템(나이스)을 활용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존의 관련 법 및 지침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정보시스템(나이스) 이용에 따른 유치원 현장에서의 수용성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기 재요령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전문가 자문단 운영: 학계 및 현장전문가 5명
- 시도교육청 현장전문가 검토: 24명(장학사 2명, 원감 6명, 교사 16명)

연구결과

- 유치원생활기록의 작성항목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작성·관리,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함.
- 유아교육법시행령의 학적용어 등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관련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유치원 현장의 수용성과 중장기적으로 초등학교와의 연계까지를 감안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정책 제언

- 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 생활기록부 항목명을 명시하는 개정(안) 마련
-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상에 학적용어(전입학, 복학, 자퇴 등)에 대한 개정안 제안
 - 유치원생활기록부에 출결상황 등과 관련하여 수업일수를 심의기구 제안 및 휴업일에 토요일 추가 제안
-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제15조),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보존 등(제16조), 유치원생활기록 작성·관리 조항(제17조) 신설을 포함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유치원생활기록부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유치원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관리된다면 현행 공고문서 성격의 고시문보다는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시문서로서의 훈령으로 공포되는 것을 검토 필요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 마련
-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선(안) 마련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최은영, 문무경, 김은영, 최윤경, 양미선, 강은진, 김동훈, 김아름, 김문정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는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추진단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국정과제에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수차례 논의 및 추진된 바 있는 유보통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핵심 쟁점을 도출하여 연착륙할 수 있는 단계별 유보통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안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유보통합 쟁점별 포럼 개최(3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6회)

연구결과

- 유보통합의 주요 요소인 거버넌스, 법률, 교사자격, 교사 양성과정, 교사 처우개선, 재정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유보통합 추진 시 관련 요소들의 쟁점을 논하고, 향후 과제를 제언함.

정책 제언

- 유보통합의 방향, 추진 전략 및 체계, 유보통합 시나리오별 쟁점 및 실행(안), 관련법 정비 방안, 재정확보 방안, 유보통합 모델(안), 유보통합 단·중·장기 실행 로드맵을 제안함.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개선방안

구자연, 도남희, 김영민

배경 및 목적

- 영유아기 식생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으로써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함.
- 양질의 식사와 간식은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급식과 간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하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 급·간식 관련 적용받는 주요 법령 등이 다름.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고찰하고 지역에 따라 파편화되어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내용과 방식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개선요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급·간식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결과

- 조사대상 전체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최우선순위
 -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조리인력 운영 안정성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최우선순위
 - 조리인력 운영 안정화,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최우선순위
 -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최우선순위



-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 사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최우선순위
 -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조리인력 운영 안정성,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최우선순위
 -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시청/교육청 지도점검,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 유치원 영양(교)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최우선순위
 -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의 적절성

정책 제언

- 비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차별 없는 바른 먹거리 지원
- 정책목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환경의 내실화 강화
- 실행기반: 단계적 유보통합 연계 영유아 급·간식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 핵심 추진과제
 -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 조리인력 운영 체계화 및 배치기준 재설정,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 급·간식 지원단가 현실화: 보육료에서 급·간식비 분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
 -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 기준 마련: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 제시,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 점검 및 평가 기준 일원화: 시청/교육청 지도점검,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 통합시스템을 통한 서류 간소화
- 주요과제
 - 현장 적용의 적절성을 고려한 학교급식법 개정
 -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
 - 식재료 구매 및 관리 등을 위한 급식 전문기관의 지원 강화
 - 가정 연계 교육을 통한 일상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조성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기초연구

도남희, 구자연, 신나리, 강규돈

배경 및 목적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대한 개선을 약속함.
- 영유아의 인구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수 감소와 폐원 증가, 정원 충족률 등의 변화로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인 수준에 부응하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보육서비스인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 모형개발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준비함으로써 향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제도와 규정 검토, 2차 자료를 분석함.
- 사례조사를 통해 지자체 시범사업의 내용과 시사점을 도출함.
- 심층면담을 통해 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청취함.
-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시범사업과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모형개발의 방향성 모색함.

연구결과

- 전반적인 보육환경과 현행 제도
 -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보육아동과 어린이집은 감소세에 있음.
 - 어린이집 1개소 당 평균 아동 수는 35.6명,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평균 3.7명,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평균은 5.0명임
-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중요성
 -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구조적 특성 지표, 국제 비교를 위해 필요한 지표임.
 - 양육가치관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기대임.
 - 보육교사의 권리 존중과 적절한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임.



- 지자체에서의 시범사업 수행
 - 6개의 지자체, 3개구에서 이미 교사 아동 축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질 높은 보육 제공, 교사와 아동 상호작용 질 제고와 빈도 증가, 안전과 개별적 요구에 부응함.
 - 원장과 교사의 만족도 높고 부모들의 만족도와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정책 제언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 제시함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현행	3명	5명	7명	15명	20명
개선	2명	4명	6명	10명	15명

- 주요 이슈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 추가 반 구성 vs. 기존 반 유지
 - 추가 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 vs. 감소한 영유아 수의 운영비 지원
- 시범사업 모형: 3안으로 0세와 3세 동시 운영 또는 각 0세반, 3세반 운영을 제시함.
- 시범사업 1년 예산을 추정했으나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 외 사업추진비, 현장점검 비용, 홍보비 등 요구됨.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박은정, 이정원, 윤지연, 김난주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부모급여 신설을 명시하고, 2023년에는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을 발표하였음.
- 부모급여와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과 이미 형성되어 있던 제도 경로 내에서의 성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현금, 서비스 시간지원 제도의 제도적 상보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쟁점 및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영아기 육아지원정책에서 부모급여의 제도적 성격을 규명하고,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도출된 부모급여의 제도적 쟁점에 대한 통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영아가구 대상 소득 및 비용지원 제도 관련 국내외(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자료 분석
- 2차 자료 분석: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데이터, 가계동향조사 2차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관련 학계 전문가 총 29명
-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자문회의 개최: 학계 정책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회과 참여)

연구결과

- 영아가구의 양육비 및 소득 분석
 - 영아가구는 높은 가정양육 비중을 보이며, 기관보육보다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비용 지출과 여성의 경력단절은 영아가구의 소득 취약성을 유발 요인임.
 - 영유아 가구 내에서도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게 나타남.
- 부모급여의 양육비 및 소득 보전 효과
 - 2024년 0세아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액 비율은 1.35로 부모급여가 양육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세의 경우는 0.65임.
 - 부모급여 지급 시 소득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액의 증가비율과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부모급여로 인한 소득 보전 효과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측됨.



- 부모급여는 0, 1세 가구의 양육비를 초과하는 급여로 나타나 양육비 지원과 더불어 가구소득 보전 효과가 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급여제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 부모급여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 분석
 - 부모급여의 지급단위로 '아동 단위' 지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8.6%로 가장 많았음.
 - 전문가들이 보는 부모급여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이며, '영아가구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영아를 둔 부모의 육아 관련 선택의 자유 보장'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이 보는 부모급여 도입의 가장 큰 파급효과는 '저소득층 아동의 기본적인 생계비 및 아동의 권리 보장'이며, '영아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제고', '출산율 제고'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민간 영아 보육서비스의 시장화에 부모급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응답함.
 - 부모급여를 도입함에 따라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 또는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69.0%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영아 가정어린이집의 질적 제고도 높게 나타나 영아 대상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정책 제언

- 부모급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이나 근거법 마련 필요
- 부모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제도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단위, 지급형태에 대한 세밀한 설계 필요
-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도록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부모의 양육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
- 통합적 정책 대응 방안: 공공 영아 보육서비스의 강화, 육아휴직제도의 포괄성 및 이용률 제고, 취약한 영아가구 대상 지원 강화, 현금 중심에서 보육서비스 중심으로 지자체 정책 개편, 수당제도의 개편(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개편)

유·초 연계교육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이음교육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문무경, 강규돈

배경 및 목적

- 교육부는 2022년 3월부터 유아의 발달과 놀이 경험이 이어질 수 있는 유-보, 유-초 협력적 연계 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연계 적용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유보, 유초 “이음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함.
- 본 연구의 목적은 2022년 유보, 유초 이음교육 시범운영 현황 및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범기관 교원과 부모, 시도교육청의 개선 요구 등을 파악하여 유초 연계교육 운영 모델 개발 및 향후 유초 연계교육의 활성화 방안 제시

연구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및 시범/연계기관 기본 통계현황, 운영 계획서 분석
- 설문조사
 - 시범사업 참여기관 총 51개원(주관 유치원 총 24개, 연계협력 기관-초등학교 16개, 어린이집 11개, 총 27개)의 기관장(원장/교장)과 담당교사 총 약 100여명
 - 시범사업 참여기관 학부모 약 500명
- 심층면담 및 서면자문
 - 총 38명의 학계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이음교육 시범사업 개선방안 및 운영 모델 관련 의견 수렴
-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연구결과

- 유초연계 이음교육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참여, 총 참여기관 51개(유치원 24개, 초등학교 16개, 어린이집 11개), 유·초 14개, 유·보 9개, 유·보·초 1개가 총 3유형으로 운영됨.
- 유초연계 이음교육 시범사업 운영 실태와 지원 요구 분석
 - 이음교육 시범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활동으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교원은 교육과정 연계수업과 활동(각 43.4%, 37.5%), 초등교원은 연계기관간의 공동행사 개최(53.8%).
 - 가장 미진한 활동으로 학부모 교육이 가장 높게 응답됨(어린이집 교원 75.0%, 초등교원 42.3%, 유치원 교



원, 37.7%).

- 이음교육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는 유초 교육과정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초등교원 76.9%, 유치원 교원 58.5%, 어린이집 교원 50.0%)로 나타남.
- 효과적인 유초연계 이음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1순위)으로 유치원교원은 유초 교원공동체 구성을 통한 상호 이해(50.9%), 초등교원은 연계프로그램과 자료개발, 보급(각 23.1%)을, 어린이집 교원은 연계교육 역량강화 연수(31.3%)로 차이가 있음.
- 시범사업 참여 학부모 인식 및 만족도
 - 유치원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3.84점, 초등 학부모들은 3.76점,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4.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시범기관 학부모들은 유치원, 초등, 어린이집 상관없이 유초연계 이음교육에 관한 정보를 안내책자 및 자료로 제공받기를 가장 희망함.

정책 제언

- 교육과정 및 교수법 연계 강화, 연계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 교사 간 소통 시간과 공간 확보, 초등교원의 협력 및 연계교육 전문성 증진 인센티브 제공, 연수 제공 및 대체 인력 지원, 기관장(원장, 교장)의 연계교육 리더십 강화
- 학부모 동아리 등을 통한 유초연계 관련 학부모 실천력 제고
- 이음교육 시범사업 전반의 모니터링 강화
 -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교원들의 네트워킹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이므로 사례 공유 확산 정례화 등의 방안 필요
 - 이음교육 시범사업을 통한 아동의 성과 파악, 효과 검증 기제 마련 필요
 - 시범사업 전반적인 전개과정과 성과에 대한 기록 축적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과 역할 효율화
 -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시그니처 이음교육 개발
 - 중앙 및 지역의 연계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서비스 인력 관리를 중심으로

김자연, 이정원, 조혜주

배경 및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가구까지 확대 지원되어 정부의 보편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일정교육을 수료해 자격을 갖춘 건강 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지원 사업임.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불만,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어왔음.
- 이에 서비스 인력 관리에 중점을 두어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 접근성 등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지원사업의 이용자, 서비스 제공 기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2차 자료 분석: 지원사업 연도별 이용 추이와 서비스 별 이용규모 파악
- 이용자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 2021~2022년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이용과 만족도 등 설문조사 수행을 통한 정책욕구 파악
- 서비스 이용자, 제공 기관, 제공 인력 간담회 개최
- 정책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연구결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태분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 체계,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관련 내용 파악을 목적으로 함.
 - 서비스 이용 추이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년간 총 833,444명이 지원사업을 이용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이용규모가 크게 축소됨.
 - 2021년 기준, 이용 빈도가 높았던 서비스 유형은 단태아/첫째아(53.0%), 단태아/둘째아(35.6%)로 확인됨.
 - 지원사업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출산 가정의 초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비스 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



대되고 있음.

- 40대 산모의 이용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사회적 현상이 반영됨을 알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요구 파악

- 2021~2022년 출산한 여성(응답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근의 산후조리 경향은 1주차; 주로 병원에 머무름, 2~3주차; 산후조리원 이용, 4주차 이후;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을 파악함.
- 응답자의 79.0%가 해당 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57.4%가 이용경험이 있었음. 서비스는 주로 15일 (38.0%)을 이용하였으며, 정부 지원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만족 비율은 65.4%로 확인함.
-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 중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모임, 단체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용자 불만 접수'의 공식적 통로'에 대한 만족 비율이 각각 43.3%, 47.8%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을 확인함.
- 지원사업 표준서비스 중,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는 각각 96.2%, 95.4%로 높은 반면,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도, 만족도, 필요도는 50% 내외임을 확인함.
- 지원사업 이외 재가서비스(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24.0%, 32.8%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정책 제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력 관리 개선

- 서비스 인력 양성 과정 개선, 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서비스 인력 관리 전산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도적 개선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 서비스 제공 행정 서류 간소화 및 비용 지원, 출산 가구 특성에 따른 지원 강화, 서비스 이용 평가 및 불만 접수 공식 채널 개설

• 사업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

- 재가 방문 서비스 간의 일관성 정립과 연계, 영유아 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강화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개편 방안

박창현, 문무경, 김아름, 정다영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가 제시한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의 쟁점을 학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와 관련된 관련 정책 쟁점에 대해 부모 및 국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와 유·초등 시스템 개편의 관점에서 학제개편에 관한 문헌고찰 및 분석
- 소셜 빅데이터 분석, 학부모 의견 분석, 정책토론회를 통한 정책 요구 분석

연구결과

[국내외 현황과 정책의 흐름]

-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 강화와 높은 공공성, 양질의 교육·보육이 요구되며 학제개편, 만 5세 취학, 무상 의무교육 등은 전 정부에 걸쳐 이어지는 논의임.
- 유·초연계는 학제개편의 관심이 증가함과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발달에 근거하여 만 5세 취학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영유아 단계 국가책임교육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 소셜 빅데이터 분석
 - 유보통합, 정책 발표 이후 부정 여론에서 긍정적 여론으로 변화하는 추세 보였으나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발표와 함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짐. 만 5세 초등취학관련, 맘카페 내 부정 평가 약 96%로 불만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K학년제는 만5세 입학제와 동일시 되며, 약 96%의 높은 부정 평가를 보임.
 - 유아무상교육은 타 학제 개편 정책 대비 긍정 인식이 약 52%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남.
- 학부모 인식 조사



-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찬성과 중립의 입장과의 비교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보임
- 영/유아학교 구축에 대해서는 중립과 동의하는 수준으로 집중되었음.
- 만 5세의 초등학습 적응 준비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유초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
 - 정부-교육청/지자체-유아교육과 보육계, 학부모, 국민들과의 소통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이 필요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및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발족하여,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
 - 자원,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등의 세부적 문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
 - 미래비전을 그리는 새로운 방식의 유보통합 로드맵 구성이 필요
 - 0~5세 교육부 통합의 의미를 함께 논의하고, (영)유아학교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
 - 교육부 중심의 0~5세 유아학교 모델의 구체화 필요
- 유보통합과 함께 고려할 유아무상교육
 - 단계적 완전무상, 유아 기간학제화 안착, 자원 마련 계획 수립
 - 유보통합 재정 규모와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 제안
 - 유아 무상교육, 의무교육의 장기 로드맵 구축
 - 학부모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도 높으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화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것을 제안
- 학제개편: 영아 공보육, 유아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유아 의무교육 고려 가능
 - 유보통합 기반,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 체제 구축이 가능한 단계에, 유아단계 기간학제화 실현, 장기 로드맵 마련
 - 추후 1 또는 2+5 정책 제언: 유아의무교육 4세 또는 4~5세, 초등 5학년제 제안, 기본단계와 초등단계로 구분, 기본단계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구분
 - 만 5세를 초등학교에 보내거나, 입학연령을 낮추거나, 조기입학을 추진하는 관련 정책들은 추후 지양
 - 만 5세 초등준비는 놀이중심 유초연계방안 마련으로 해결, 연구 및 프로그램 강화

양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

최윤경, 박은정, 박유경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정부 국정과제로 부모급여의 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부모급여에 대한 법적 기반의 마련 및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살펴보고 법적 기반의 마련을 위한 단·중기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연구는 부모급여의 도입을 앞두고 이를 위한 실행기반으로서 양육지원서비스의 확대 강화와 이를 반영한 아동·양육지원에 관한 통합적 법 기반의 마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부처 사업으로서 다양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현행 육아정책 및 양육지원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된 수요와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면서 중복과 사각지대 없이 이행되는 (가칭) 양육지원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가능한 법체계를 제언

연구방법

- 문헌연구: 수당 및 현금지원, 양육지원서비스에 관한 국내외 정책 및 법 체계 분석
- 현금-서비스 지원 및 관련 법 기반에 관한 해외사례 고찰(일본, 독일)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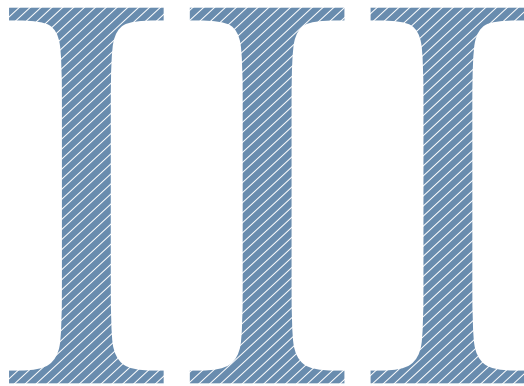
- 현금지원 확대의 주요 쟁점 및 부모급여 도입 방안
 - 부모급여의 지급형태는 영아수당과 같이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혼합 형태이거나 일괄 현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음.
 - 부모급여 지급단위(아동, 양육자(가구))인지에 따라 제도의 설계 및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
 - 부모급여 지급 시 부모교육과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연계와 실시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 현금지원 확대에 따른 양육지원서비스 통합적 운영 방안
 - 통합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양육지원서비스 체계화 및 다양화의 방향성과 주요 내용 제언
- 서비스-시간-현금 지원으로 구성된 양육지원 전반에 관한 통합법 제정 가능성
 - 각종 수당 등 현금지원 통합법(안)- 가칭 「양육지원수당법」
 - 아동양육지원에 관한 현금-서비스 지원 통합법 제정 방향 - 가칭 「양육지원기본법」



정책 제언

- 부모급여 도입의 법적 기반은 현금-서비스 지원의 양육지원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법으로서의 접근을 필요로 함.
 - 부모급여의 도입 등 현금지원 확대에 따른 양육지원서비스 확대와 양육지원의 통합적 운영 방안
 - 양육지원서비스의 확대 및 각종 현금지원을 반영한 통합법(안) 제언
- 현금지원 확대에 따른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방안
 - 양육지원기본법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양육지원서비스의 대상 연령을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 초등 저학년까지 확장
 - 양육주체로서 국가-지자체-부모의 책무성을 명시
 - 부모의 자녀양육의 권리를 지원하고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양육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 전달체계의 지역 격차와 서비스 수혜차,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책임주체 명시
 - 양육지원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권의 관점을 반영
 -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어머니로 한정되지 않도록 함.
 - 서비스 이용 및 접근 경로에서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 확대에 따른 수당-양육지원서비스 통합법 제정 방향 및 법 제정 방향
 - 통합 법의 제정을 수당통합법(가칭 「양육지원수당법」)과 양육지원서비스 및 수당 통합법(가칭 「양육지원기본법」)의 2개안을 중심으로 살펴봄.
- 상기한 양육지원서비스 확대를 반영한 가칭 「양육지원기본법」에 대해 논의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현행 아동수당법 개정 관련 주요 고려사항
 - 각종 수당 등 현금지원 통합법(안) - 가칭 「양육지원수당법」
 - 아동양육지원에 관한 현금-서비스 지원 통합법 제정 방향 - 가칭 「양육지원기본법」

2022년도 KICCE 연차보고서



2022년도 주요 활동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동향 공유 및 토론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주요 학술행사이다. 2022년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새 정부의 교육·보육정책, 직업건강, 급·간식, 돌봄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차	2022. 4. 28(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라다	김미애 의원실	토론 이완정 회장(한국아동학회) 정정희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오필순 원장(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조용남 국장(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이중규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위성순 회장(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최은영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유보영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유희승 과장(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제2차	2022. 7. 6(수) KINTEX 제2전 시장 회의실(303 호)	직업건강 취약계층 으로 재조명된 돌봄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발표 박가영 차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은희 교수(울지대)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이상희 부장(산업안전보건공단) 전지원 책임연구원(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안현미 박사(중앙대) 정혜선 교수(가톨릭대)
제3차	2022. 11. 30(수)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방안		발표 구자연 팀장(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토론 정선아 교수(숙명여대) 이중규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경미 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박영란 공동대표(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김동훈 팀장(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연구팀)
제4차	2022. 12. 2(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일하는 모든 부모 를 위한 자녀돌봄 시간 지원 방안		발표 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김진옥 교수(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승윤 교수(중앙대학교) 김은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차옥경 정책연구위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남효정 전문위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기반을 통한 선도적 육아정책 개발과 선제적 이슈 발굴 등을 위해 유관 부처,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언론 등 43개 기관으로 구성된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제1차 포럼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 <아이가 행복한 미래를 말하다>를 개최하였다. 제2차 포럼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22. 5. 3(화) 페럼타워 페럼홀, 온라인 녹화(YouTube)	아이가 행복한 미래를 말하다	기조강연 하지현 교수(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패널 박상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나성웅 원장(한국보육진흥원) 도미향 회장(한국부모교육학회) 고완석 팀장(굿네이버스) 김도정 학부모 김민주 학부모 손정환 학부모 이예은 학부모
제2차	2022. 12. 9(금) 명동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온라인 녹화(YouTube)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이행 방향	발표 이재희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김나영 센터장(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토론 이병래 회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장화정 본부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전효정 회장(한국아동학회) 정정희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KICCE 정책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제10차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2차, 제9차 행사는 ‘미래환경 대응연구 정책포럼’으로 진행되었다. 성일종 의원실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교육법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차	2022. 9. 6(화) 명동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 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성일종 의원실, 이태규 의원실, 강득구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	토론 문미옥 의장(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정효정 회장(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정정희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이경미 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종규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위성순 회장(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이재필 대표(한국영유아교사협회) 이혜연 사무총장(장애영유아연대) 최현주 부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
제2차	2022. 9. 29(목)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미래환경 대응연구 1차 정책포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공간, 놀이, 디지털		발표 박창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이수정 원장(다솜유치원) 서희전 교수(동명대) 권영화 회장(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토론 서화니 원감(봄누리 유치원) 안성미·장은정 교사(다솜유치원) 김동심 교수(한신대 교육대학원) 이혜연 교문(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제3차	2022. 9. 28(수) 명동 유네스코 빌딩 11층 유네 스코홀	미래 유아교육· 보육 변화와 지속 가능발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기홍 의원실, 고민정 의원실, 김미애 의원실, 안철수 의원실, 한국유 아교육학회, 한국영유 아보육학회, 한국아동 학회, 한국열린유아교 육학회	기조강연 환경구 사무총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표 문무경 실장(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 토론 정정희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정효정 회장(한국영유아보육학회) 이완정 회장(한국아동학회) 이병래 회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서울특별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오필순 원장(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제3차 KICCE 정책토론회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4차	2022. 10. 15(토)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YouTube)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		토론 김건형 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회) 정금숙 위원장(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교육혁신위원회) 박다솜 위원장(서울교사노동조합 유아부) 장혜연 대표교사(유아교육개선을 위한 유아교사연합) 김현숙 회장(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패널 손혜숙 회장(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권정윤 회장(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5차	2022. 11. 11(금)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온라인 생중계 (YouTube)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행 방안 모색	대한교육법학회	발표 박창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박혜경(前 전라남도청 인권보호관) 토론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지혜진 팀장(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 박호근 교수(한국체대 교수, 前 서울시의원) 조원용 교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윤달원 교수(대한교육법학회) 황홍규 교수(서울과기대) 전지규 박사(한국외대) 박신욱 교수(경상국립대) 김법연 교수(고려대) 김 용 교수(한국교원대) 하봉운 교수(경기대)
제6차	2022. 11. 25(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 3년,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김영아 교수(송의여대) 구자연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윤미경 원장(푸른아이세상어린이집) 정미연 교사(서울명일유치원) 신수현 학부모(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배화유치원) 김정희 장학관(경기도교육청) 정경진 센터장(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제5차 KICCE 정책토론회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KICCE 정책토론회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7차	2022. 11. 30(월) 명동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1부] 유아교육 지원 행정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2부] 보육과 유아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연계 협력 방안		[1부] 발표 문무경 실장(육아정책연구소) 심현기 센터장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지방교육행정조직분석센터) [2부] 발표 문무경 실장(육아정책연구소) 김 용 교수(한국교원대)
제8차	2022. 12. 6(화) 전경련회관 오팔룸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	고민정 의원실	발표 배윤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장혜림 교수(서울장신대) 토론 강현주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정선옥 교수(덕성여대)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남궁제정 회장(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협의회)
제9차	2022. 12. 13(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YouTube)	미래환경 대응연구 2차 정책포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기후, 그린, 생태		발표 지옥정 교수(한국교통대) 오창길 대표(자연의벗연구소) 김은주 교수(부산대) 토론 장하나 공동대표(정치하는 엄마들) 홍보강 팀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임미령 이사장(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제10차	2022. 12. 17(토)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YouTube)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발표 박창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윤지혜 교사(온담초병설유치원) 김원배 교사(포일사과나무유치원) 이현령 교사(한양제일유치원) 최정희 교사(유정유치원) 서지혜 유아특수교사(양도초병설유치원) 김혜영 유아특수교사(전주유학학교) 함미영 교사(알프하임어린이집) 김윤진 교사(홍제어린이집) 김민지 교사(아름다운어린이집) 김은영 교사(파랑새어린이집) 최 철 유아특수교사(시립숲속어린이집) 강은주 유아특수교사(초록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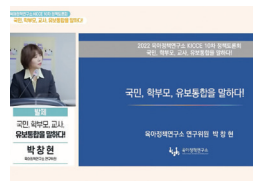
제7차 KICCE 정책토론회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제9차 KICCE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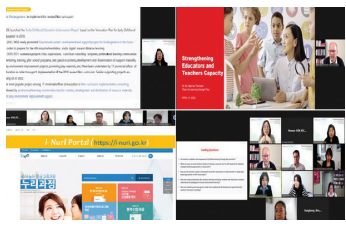


제10차 KICCE 정책토론회

국제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The LEGO Foundation과 ‘놀이를 통한 배움’ 웨비나를 기획하였으며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는 2차례의 웨비나를 진행하였다. ‘교사 역량 강화’, ‘아동의 놀이기회 접근성’을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은영, 박원순, 문무경 박사와 Learning Through Play의 책임자인 Bo Stjerne Thomsen 박사가 발표하였다. 11월에는 호주 가톨릭대학교의 Joce Nuttall 교수를 초청하여 호주의 유아교육·보육 인력 관련 이슈에 관련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공동주최기관	주제 및 주요 참석자
The LEGO Foundation-KICCE Webinar: Learning through Play II	2022. 4. 15(금) 온라인 생중계 (ZOOM)	The LEGO Foundation	주제 Strengthening educators and teachers capacity 발표 김은영 선임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박원순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Bo Stjerne Thomsen, Vice-President (Chair of Learning Through Play)
KICCE 국제세미나: 호주 유아 교육·보육 인력의 주요 이슈와 정책 대응	2022. 11. 1(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주제 Workforce Issues and Policy Responses in Australian ECEC 발표 Joce Nuttall 교수(Australia Catholic University)
The LEGO Foundation-KICCE Webinar: Learning through Play III	2022. 11. 8(화) 온라인(ZOOM)	The LEGO Foundation	주제 Children's Accessibility to Play Opportunities 발표 문무경 선임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Bo Stjerne Thomsen, Vice-President (Chair of Learning Through Play) 토론 Alexandra Maria Brentani 교수(상파울로대학교) Sachiko Nozawa 교수(일본 동경대) Minyi Li 교수(중국 북경사범대)



The LEGO Foundation-KICCE Webinar



KICCE 국제세미나



The LEGO Foundation-KICCE Webinar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23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 논문발표는 부모양육과 양육환경, 미디어사용과 중독, 학업 및 학교, 사교육 및 집행기능의 4개 주제 8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도미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박응임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조성연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효정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가 세션별 좌장으로 발표 및 토론을 이끌었다.

구분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022. 9. 23(금) 대한상공회의소	기조강연 차승은 교수(수원대) 통계워크숍 강현철 교수(호서대) 논문세션 부모양육과 양육환경, 미디어사용과 중독, 학업 및 학교, 사교육 및 집행 기능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성과 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행사를 진행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년도 협동연구 '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영유아 교육과 돌봄 공간 활용 실태 분석 및 컨설팅 방안 연구',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Ⅰ):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책세미나와 정책포럼을 각 1회 진행하였다. 2022년도 일반연구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심층분석 연구'의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2차례에 걸쳐 연구성과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에서는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에서 수행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주제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2022년도 제1차 KICCE 정책세미나: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교육과 돌봄공간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2022. 1. 13(목)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발표 문무경 박사(육아정책연구소) 강현미 박사(건축공간연구원) 토론 조진일 박사(한국교육개발원) 변나향 교수(충북대) 강희은 과장(서울특별시청) 배미란 장학사(경기도교육청) 조용남 국장(한국보육진흥원)
정책포럼: 공간과 스마트기술로 풀어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2022. 6. 7(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발표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성지현 교수(성균관대) 손아영 선임연구위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토론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강희은 보육담당관(서울특별시청) 최정윤 교수(인천대) 여영정 교수(연세대)
김선교 의원실 공동주최 육아정책 전문가 토론회: 아이 기르기가 좋은 사회, 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2. 12. 7(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발표 김나영 센터장(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토론 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신영미 박사(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범 센터장(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정해일 교수(고려대)



2022년도 제1차 KICCE 정책세미나



정책포럼: 공간과 스마트기술로
풀어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김선교 의원실 공동주최 육아정책
전문가 토론회

정책세미나 및 포럼

주제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제1차 연구성과 세미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특성과 패널 표본이탈 관련 요인 탐색	2022. 8. 30(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발표 조숙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이상인 교수(충남대) 토론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차 연구성과 세미나: 한국아동패널 심층분석: 아동, 부모, 가구, 정책을 중심으로	2022. 12. 1(목) 명동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발표 조숙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최효식 교수(춘천교대) 송주현 교수(연세대) 김재철 교수(한남대) 송경희 교수(우석대)
2022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포럼: 저출생시대, 육아정책의 당면 과제와 전략	2022. 11. 29(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발표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안세아 연구위원(충남여성가족연구원) 박규희 교수(고려대 안산병원) 최영준 과장(보건복지부) 이소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현경 국장(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윤재석 과장(인천광역시청)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제1차 연구성과 세미나



제2차 연구성과 세미나

2022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포럼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수행한 2022년도 수시연구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총 3차에 걸쳐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을 진행하였다. 유아교육·보육 학계 전문가, 행·재정 학계 전문가, 시·도 교육청,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유보통합 방안을 공유하고 쟁점에 관한 논의를 나누었다.

주제	일시/장소	주제 및 주요 참석자
제1차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Ⅰ)	2022. 4. 29(금) 페럼타워 페럼홀, 온라인 생중계(YouTube)	주제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 및 실행방안 탐색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및 법령정비 방안 발표 최은영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하연섭 교수(연세대) 김정현 교수(전북대) 토론 정정희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권혜진 회장(한국보육지원학회) 이경미 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위성순 회장(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이중규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한아 학부모 강정석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신나리 교수(충북대) 이덕남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백정희 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 김정희 과장(경기도교육청) 조용남 국장(한국보육진흥원) 이남정 센터장(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2차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Ⅱ)	2022. 5. 2(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YouTube)	주제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의 쟁점 발표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정정희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이완정 회장(한국아동학회) 이성희 교수(공주대) 강정원 교수(한국성서대) 이경미 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3차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Ⅲ)	2022. 5. 13(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YouTube)	주제 유아교육·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및 통합 재정확보 방안 발표 양미선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엄문영 교수(서울대) 토론 우석진 교수(영지대) 오범호 교수(서울교대) 김동훈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이경미 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포럼 및 공청회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도 수탁과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포럼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총 3차례로 진행된 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분과별 의제를 발굴하고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3차 포럼은 유튜브를 통하여 중계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1월에는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영유아 보육 정책의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23~'27)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주제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3차 포럼	2022. 10. 14(금) 한국보육진흥원 6층 교육장, 온라인 생중계(YouTube)	발표 강정원 교수(한국성서대) 김정화 교수(국립목포대) 권기남 교수(오산대) 신나리 교수(충북대) 토론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조막래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미정 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미정 센터장(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원세연 과장(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이중규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함미영 지부장(민주노총 보육교사지부) 유보영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23~'27) 공청회	2022. 11. 25(금)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YouTube)	발표 유보영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토론 김해금 교수(동남보건대) 박명하 분과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박현규 부모(100인의 아버지) 이삼식 원장(한양대학교 부설 고려사회연구원) 정호용 교수(국민대) 최은주 센터장(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함미영 지부장(민주노총 보육교사지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3차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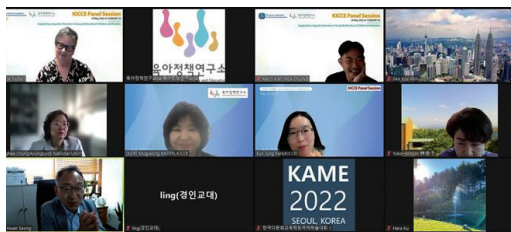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23~'27) 공청회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성과의 확산과 정책화 노력을 위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육아정책 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학술행사 세션을 구성하여 수행과제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제 및 주요 참석자
2022. 5. 20(금) 온라인 생중계 (ZOOM)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KICCE Panel Sssion	주최 한국다문화 교육학회 세션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1 Policies and practice to support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Australia(Joce Nuttall 교수,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발표 2 The current situation of ECEC for children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Yuko Hayashi 교수, Kobe Shoin Women's University) 발표 3 Policy measures to empower multicultural parents in supporting their young children's bilingual education(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Kevin Kien Hoa Chung 교수(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Chunghye Chung 교수(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22. 9. 24(토) 온라인 생중계 (ZOOM)	한국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 세션	주최 한국유아교육학회 세션 육아정책연구소, 유네스코한국위 원회, 한국유아교 육학회	주제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와 영향(SDG 4.2 분과) 발표 1 기후위기 그림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이 유아의 친환경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안민경 대구가톨릭대 석사, 이현진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표 2 한국과 중국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 비교(Xiaodan Jin 중국 지메이대 교수, 김은혜 계명대 교수) 발표 3 자연물을 활용한 창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이연화 나주시청 아동보호팀 주무관) 발표 4 COVID-19 시대 영유아 건강 관련 뉴스 토픽모델링 분석(정부민 경북대 박사과정, 이호림 경북대 교수) 발표 5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기반한 목화프로젝트(허외화, 신은연, 정정미, 이안휘 대구 동영유치원 원장 및 교사) 토론 박원순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홍보강 팀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KICCE Panel Sssion



한국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 세션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제 및 주요 참석자
2022. 11. 5(토) 온라인 생중계 (YouTube)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주최 한국아동학회 세션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1 영유아보육·교육기관 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도 실태 및 요구(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미경 연구위원, 박창현 연구위원, 최윤경 연구원)
2022. 11. 5(토) 온라인 생중계 (ZOOM)	한국육아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주최 한국육아지원학회 세션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2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장애위험영유아지도를 위한 교사자료 개발(최일선 경인교대 교수, 김형미 한국성서대 교수, 김영아 송의여대 교수) 발표 3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장애위험 선별을 위한 교사용 발달검사 개발(박해원 울산대 교수, 이경옥 덕성여대 교수, 양성은 인하대 교수)
2022. 11. 25(금) 온라인 생중계 (YouTube)	2022년도 글로벌코리아 포럼: 육아정책연구소 세션	주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주제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환경교육과 국제협력 발표 1 Most vulnerable to most valuabl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ECD in climate change policy(Dr. Adrian Cerezo,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ction Network: ECDAN) 발표 2 How do we empower young children for their uncertain future?(Dr. Ellie Taylor,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발표 3 ARNEC regional initiative: A clean, saf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for young children(Evenlyn Santiago, CEO, Asia Regional Network of Early Childhood) 발표 4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 유아교육분야의 노력과 과제(지옥정 EFS 유아와 환경연구소 대표, 한국교통대 명예교수) 토론 정다운 박사(한국환경연구원) 고완석 팀장(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



2022년도 글로벌코리아 포럼: 육아정책연구소 세션

업무협약

육아정책연구소는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활발히 체결하여 연구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2년에는 국내·외 4개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실제 연구 수행 및 협력, 세미나 개최를 활발히 실시하였다. LG유플러스와 시청자미디어재단, LEGO Korea와 LEGO Foundation,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육아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외를 대상으로 연구 저변의 확대와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시	협력기관	협약내용
2022. 1. 12(수)	LG유플러스, 시청자미디어재단	• 미디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아동권리 캠페인 진행 • 아동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공동연구 수행
2022. 10. 4(화)	LEGO Korea, LEGO Foundation	•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정보와 데이터 공유 • 지식 확산과 미래 전략 논의를 위한 공동 정책 포럼과 심포지엄 개최 • 정책 브리프 공동 발간
2022. 12. 16(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활성화 및 생애초기단계의 성장·발달 도모를 위한 협력 - 콘텐츠 및 학술자료 등의 공동 활용 - 다양한 사업의 상호 연계 홍보 -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진행
2022. 12. 30(금)	육아방송	• 양육환경 질 제고를 위해 연구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홍보 콘텐츠 공유 •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자료 배포 및 육아방송 대상 송출·게시를 통한 확산



LG유플러스, 시청자미디어재단



LEGO Korea, LEGO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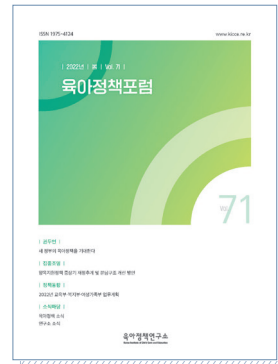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육아방송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포럼」은 육아 관련 현안 정책과제를 분석하는 '집중조명'과 국내·외 육아정책동향을 담은 '정책동향' 등으로 구성된 계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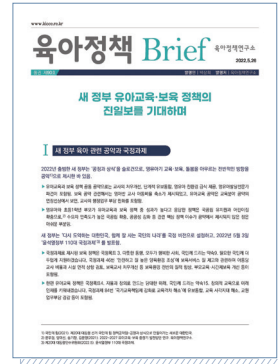


호수	발행일	구분	주제	집필자
71호	2022. 3. 31	권두언	새 정부의 육아정책을 기대한다	박상희 소장
		집중조명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방안	김동훈 연구위원
		정책동향	2022년 교육부·복지부·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대외홍보팀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대외홍보팀
72호	2022. 6. 30	권두언	모두 행복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과제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집중조명	육아지원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 방안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	최윤경 선임연구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과 실태조사 추진 전략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정책동향	아이돌봄서비스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언	하유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부장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대외홍보팀

호수	발행일	구분	주제	집필자
73호	2022. 9. 30	권두언	한국 아동정책의 지향	김선숙 한국아동복지학회 학회장
		집중조명	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이정림 선임연구위원
			청소년 산모 현황 및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이재희 연구위원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양육환경 비교분석 및 격차해소 방안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정책동향	장애영유아 의무교육과 국가책임교육 구축방안	박창현 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대외홍보팀
74호	2022. 12. 31	권두언	부모급여에 대한 기대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집중조명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지원 수요와 정책적 함의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부모급여 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박은정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제도	대외홍보팀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대외홍보팀

육아정책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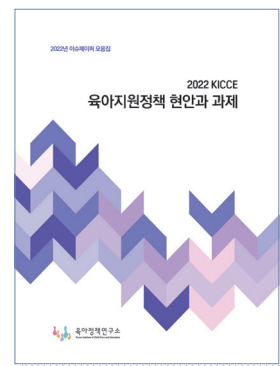
「육아정책 Brief」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제안하는 정책현안지이다. 2022년에는 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유보통합 등 긴급현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련 정책대응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90호	2022. 5. 26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진일보를 기대하며	최은영 연구위원
91호	2022. 7. 6	한국아동, 코로나19 전후의 여가시간 사용 및 생활습관의 변화	김지현 연구위원
92호	2022. 7. 26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93호	2022. 12. 16	유치원과 어린이집, 안전한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94호	2022. 12. 29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도입 배경과 실현을 위한 선제조건	박창현 연구위원

Issue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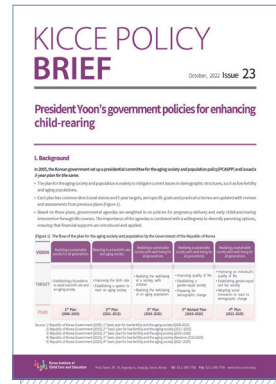
「Issue Paper」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부상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	2022. 6. 9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권미경 연구위원
2	2022. 6. 30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 및 정책 육아문화 조성방안	권미경 연구위원
3	2022. 7. 25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개요 및 정책적 기대효과	이정림 선임연구위원
4	2022. 8. 3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 요인 및 지원 방안	박은정 부연구위원
5	2022. 8. 24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6	2022. 9. 5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실태에 기반한 교사 지원 방안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7	2022. 10. 21	동아시아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 비교 -한·중·일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도남희 연구위원
8	2022. 11.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양육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9	2022. 11. 25	교사 인식조사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실행 방안	최은영 연구위원
10	2022. 11. 3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11	2022. 12. 2	육아정책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과 연구자료 활용성 확대를 위한 제고 방안	김자연 부연구위원

KICCE Policy Brief

「KICCE Policy Brief」는 한국의 육아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쉽게 서술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영문 간행물이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23호	2022. 10. 27	President Yoon's government policies for enhancing child-rearing	김자연 부연구위원
24호	2021. 11. 30	The Change in the Cash Benefit System for Families with Infant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Parental Benefits in Korea	박은정 부연구위원
25호	2022. 12. 8	ECEC Digital Policy in Kore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박창현 연구위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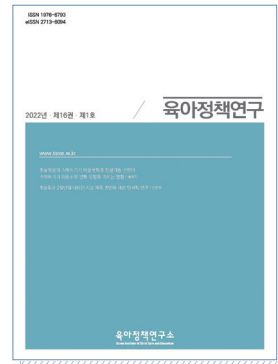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는 세계 주요 국가의 육아정책 동향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집필한 간행물로, 육아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28호	2022. 12. 31	호주의 육아정책 동향	김지현 연구위원, 김자연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2007년부터 학계, 정책 및 현장전문가, 관련 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취학 전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를 다루는 학술지로, 201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연 3회로 발간횟수를 늘려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총 1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6권 1호	2022. 6. 30	초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기기 의존도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	홍예지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
		초등학교 2학년의 다요인 지능 예측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은옥 (가톨릭대 생활문화학과 박사)
16권 2호	2022. 9. 30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 정서조절의 차이	김선희 (부산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보육교사 그릿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강신영 (가톨릭대 아동학과 강사) 문혁준 (가톨릭대 아동학과 교수)
		2022~2027 유치원 교사 수요 추계	김정숙 (한국방통대 유아교육과 조교수)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 교사효능감, 직무몰입과 적응수행 간의 구조적 관계	리 창 (강원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문은식 (강원대 유아교육과 교수)
		어린이집 유아반의 안전사고 발생과 사후조치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신나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우현경 (연세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겸임교수) 김현경 (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교수) 박이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이지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박사후료)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6권 3호	2022. 12. 31	남녀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 발달의 매개효과	릉 운 (전북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김태연 (전북대 아동학과 조교수, 전북대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 부와 모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박정현 (가톨릭대 아동학과 강사)
		학령기 여아의 성숙시기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박하연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은선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박유경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석사) 이강이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겸무 연구원)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한국,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한진주 (영남대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윤재희 (영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16권 3호	2022. 12. 31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의 이중매개효과	허윤성 (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석사통합과정) 최지은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소희 (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석사과정) 한지수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이민지 (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석사과정) 정윤교 (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석사과정) 김현경 (연세대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교수)
		아동이 지각한 성취압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내재화 문제와 자기조절 효능감의 삼원 조절효과	전성은 (전남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강영신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아동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에 대한 잠재계층분류와 예측 요인: 성장혼합모형 중심으로	김형석 (교육학 박사, 동방여중 교사) 이정호 (교육학 박사 수료, 대전성모여고 교감) 홍혜영 (교육학 박사, 한남대 교수학습지원센터)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JCCPE)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영문 학술지로 세계적인 학술전문출판사인 Springer사의 Open Access 플랫폼인 'SpringerOpen'을 통해 전자저널로 발간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립 Rutgers 대학의 국립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8년 SCOPUS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22년에는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6(1)	2022. 1. 10	Understanding the secondary system of therapeutic alliance in autism interven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parents and caregivers	John Robert C. Rilveria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16(2)	2022. 1. 29	Preparing early educators as frontline leaders and change agents with a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	Yujin Lee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Leadership and Innovation,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Anne Douglass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Leadership and Innovation,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Songtian Zeng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Leadership and Innovation,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Amanda Wiehe Lopes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Leadership and Innovation,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Arazeliz Reyes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Leadership and Innovation,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16(3)	2022. 2. 14	Simulating employment and fiscal effects of public investment in high-quality universal childcare in the UK	Jerome De Henau (Faculty of Arts and Social Sciences, The Open University)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6(4)	2022. 3. 5	Dogs at school: a quantitative analysis of parental perceptions of canine-assisted activities in schools mediated by child anxiety score and use case	Wendy Irene Fynn (University of Derby) Jessica Runacres (University of Derby)
16(5)	2022. 6. 3	Effects of philosophical ethics in early childhood on preschool children's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d theory of mind	Tugce B. Arda Tuncdemir (PreK-Grade 8 Education and Professional Studies, The Lock Haven University of Pennsylvania) Michael D. Burrough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Ginger Moor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6(6)	2022. 6. 7	Pre-K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t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during universal Pre-K expansion in New York City	Sanae Akaba (Institute for Liberal Arts,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Lacey E. Peters (Department of Curriculum and Teaching, Hunter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Eva Liang (Research Foundation, Hunter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herryl B. Graves (Department of Curriculum and Teaching, Hunter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6(7)	2022. 6. 29	A systems perspective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ducation in South Africa	Lieschen Venter (Department of Logistics, Stellenbosch University)
16(8)	2022. 8. 8	"Not everyone can do this": childcare context and the practice of skill in emotional labor	Ragini Saira Malhotra (University of Southern Maine)
16(9)	2022. 10. 10	Implications of CCTV cameras on child-care centres' routines, peer relationships, an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child care educators' opinions	Hagit Meishar-Tal (Instructional Technologies Department, Holon Institute of Technology) A. Forkosh-Baruch (Education department, Levinsky College of Education) L. Levy (Instructional Technologies Department, Holon Institute of Technology) T. Shenkar (Instructional Technologies Department, Holon Institute of Technology)
16(10)	2022. 10. 11	Parental anxiety and form of parent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lfan Fanhas Fatwa Khomaeny (Faculty of Teacher Training and Education, Muhammadiyah University of Tasikmalaya) Erika Setyanti Kusumaputeri (Sunan Kalijaga State Islamic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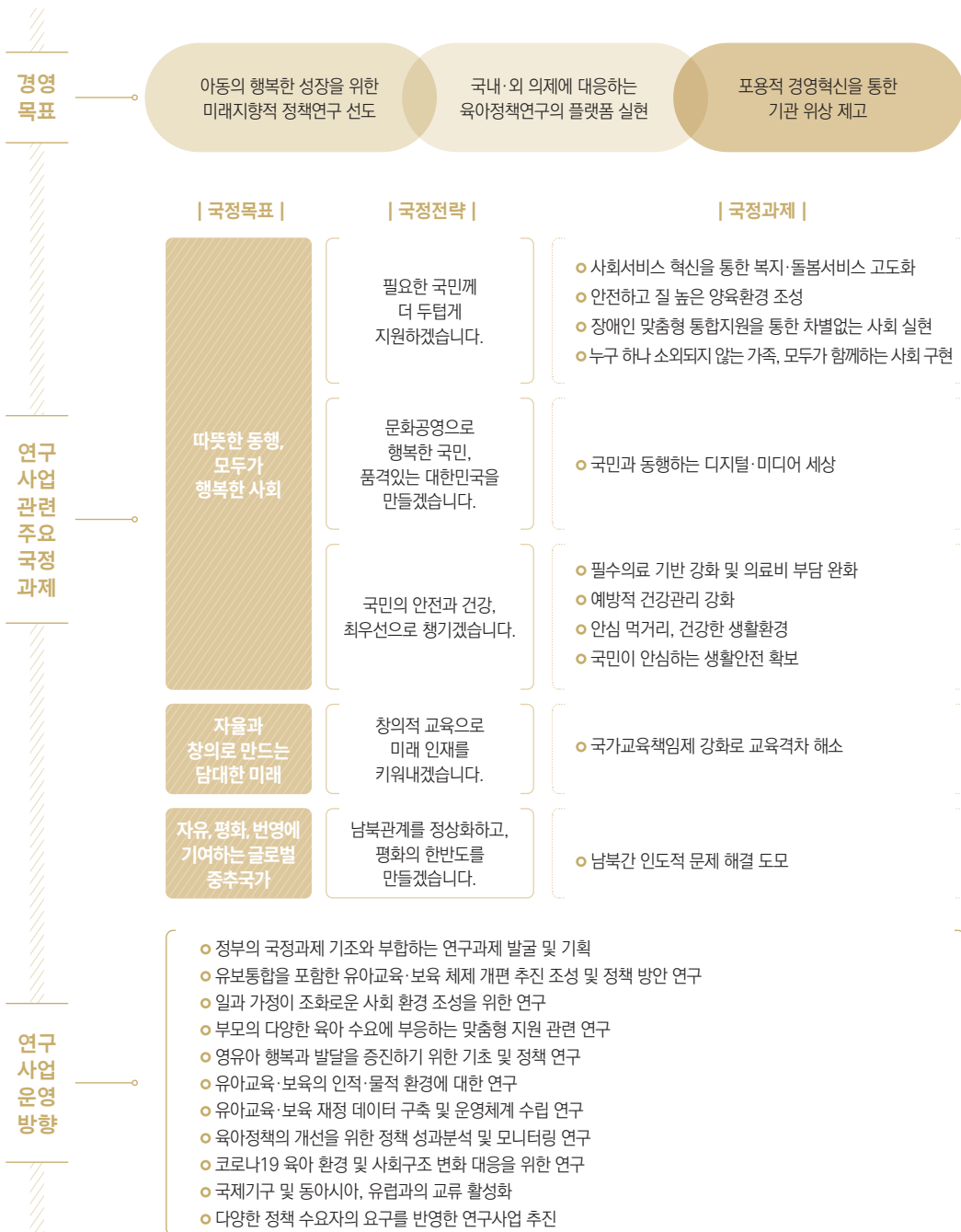
2022년도 KICCE 연차보고서

IV

2023년도 추진계획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3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중점연구사업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

- 연구소 설립 목적 부합성
- 국정과제 및 경영목표와의 부합성
- 연구과제의 시의 적절성
- 과학성 및 기초성
- 정책 중요도, 정책 활용도 및 기여도

중점연구사업명	요약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 최근 잇따른 영아 유기와 이에 따른 영아 사망으로 인해 관련 법제도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영아 유기는 영아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대응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배아박스 개선, 익명출산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학대 사건 중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현황과 정책, 이와 관련된 정책과 법안의 쟁점사항과 논의를 통섭하여 영아 학대와 유기에 대한 향후 대응책, 정책 추진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영유아를 불문하고 부모의 대리돌봄 서비스를 위주로 확대되어 온 양육지원 정책이 영아기의 발달특성과 영아 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대응을 토대로 영아 가족의 소득 보장 확대, 가정 내 양육 지원 확대로 전환되고 있음.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의 전환기를 맞아 방향성을 점검하고 양육지원 범주 및 개별 정책의 적합성과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과 고려사항을 점검하여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제안함.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 본 연구는 2018년~2022년까지 총 5개년 동안 추진되었던 'KICCE 소비실태조사'에 이어 영유아 가족의 소득·소비 지출 구조, 양육비, 육아서비스 관련 기초 자료를 지속 축적함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기존 연구의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신·출산기'의 비용 부담과 산전산후관리 서비스 관련 조사를 추가하여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함. • 기간 정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 등 비용 지원 정책과 함께, 다양한 육아서비스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등을 통한 시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음.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아동수당' 도입과 확대,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도입 등 영유아 가족에 대한 현금성 수당의 지원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부모의 시간지원이 크게 확대됨 • 영유아 가구 대상의 현금성 지원의 확대는 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요한 육아정책의 경향으로 지속되어, '23년부터는 만 0~1세 영아가구 대상으로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24년에는 0세아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0만원이 지급되는 '첫만남꾸러미'와 함께 월 100만원까지의 고액 현금지원이 영아 가구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임에 따라 영아 가족의 소득 및 지출액의 변동, 현금성 지원의 이용 항목이(예: 민간돌봄서비스업)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자녀 출산 이후의 '육아기' 중심 소비·지출, 서비스 이용 분석에서 임신기 및 산전·산후관리 관련 소비·지출 경향과 관련 서비스 이용까지를 포괄하여 조사함으로써 임신·양육기 가족의 비용 부담과 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영유아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는 각종 비용과 서비스 지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 반복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의 개발과, 도입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과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Ⅰ) : 실행과제 도출과 성과지표 개발	• 본 연구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추진 정책의 성공 요인과 저해 요인 등을 규명하고, 추진 성과와 영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보통합의 단계적 완성을 견인하고자 함. • 특히, 관계집단 참여기제 마련(포럼, 권역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유보통합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및 그 과정과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총 3개년 연구로 연차별 주제는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tr> <td>1년차(2022년)</td><td>유보통합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1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및 2차년도 성과 제고 방안 제시 - 부문별: ① 법, ② 행정부서, ③ 재정, ④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고 연수, ⑤ 보육, 교육과정, ⑥ 시설환경, ⑦ 서비스 질 평가, ⑧ 부모 양육 및 가정 지원, ⑨ 연구와 데이터 시스템, ⑩ 기타 등</td></tr> <tr> <td>2년차(2024)</td><td>유보통합 2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및 3차년도 성과 제고 방안 제시(중점주제: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td></tr> <tr> <td>3년차(2025)</td><td>유보통합 3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및 향후 성과 제고 방안 제시(중점주제: 행정부처)</td></tr> </table>	1년차(2022년)	유보통합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1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및 2차년도 성과 제고 방안 제시 - 부문별: ① 법, ② 행정부서, ③ 재정, ④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고 연수, ⑤ 보육, 교육과정, ⑥ 시설환경, ⑦ 서비스 질 평가, ⑧ 부모 양육 및 가정 지원, ⑨ 연구와 데이터 시스템, ⑩ 기타 등	2년차(2024)	유보통합 2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및 3차년도 성과 제고 방안 제시(중점주제: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	3년차(2025)	유보통합 3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및 향후 성과 제고 방안 제시(중점주제: 행정부처)
1년차(2022년)	유보통합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1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및 2차년도 성과 제고 방안 제시 - 부문별: ① 법, ② 행정부서, ③ 재정, ④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고 연수, ⑤ 보육, 교육과정, ⑥ 시설환경, ⑦ 서비스 질 평가, ⑧ 부모 양육 및 가정 지원, ⑨ 연구와 데이터 시스템, ⑩ 기타 등						
2년차(2024)	유보통합 2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및 3차년도 성과 제고 방안 제시(중점주제: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						
3년차(2025)	유보통합 3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및 향후 성과 제고 방안 제시(중점주제: 행정부처)						

2023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본 연구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전생애적 경력 개발 과정을 파악하여 경력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최근 잇따른 영아 유기와 이에 따른 영아 사망으로 인해 관련 법제도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영아 유기는 영아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대응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베이비박스 개선, 익명출산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학대 사건 중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현황과 정책, 이와 관련된 정책과 법안의 쟁점사항과 논의를 통섭하여 영아 학대와 유기에 대한 향후 대응책, 정책 추진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영유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 초등저학년의 심리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사회·정서 발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정서발달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임.
4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II):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부모와 아동의 보편적 권리인 돌봄권의 평등한 실현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2개년 연구로 진행됨. 2차년도 연구는 남성의 자녀돌봄 시간 관련 영향요인 및 제도적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자녀돌봄의 성별 불균형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5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 유치원 방과후(돌봄)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자와 수요자의 개선요구 수렴 및 국내외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6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본 연구는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셰어런팅 등 온라인상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부모,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기업(온라인 포털업체)의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아동 스스로 위험의 인식 능력을 제고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번호	과제명
	개요
7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영유아와 초등자녀(만 8세 이하)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여 현행 돌봄 지원으로 충족할 수 없는 긴급돌봄의 유형별로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8	영유아데이터 통계 통합 현황과 개선 방안
	본 연구는 초저출산의 기초 속에서 영유아데이터 관련 각 부처별 행정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접근 가능한 승인통계를 검토하여 영유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본 연구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기조와 부하되며 영유아데이터의 생산과 추구 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취약대상인 영유아의 삶의 질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
9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영유아를 불문하고 부모의 대리돌봄 서비스를 위주로 확대되어 온 양육지원 정책이 영아기의 발달특성과 영아 가구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대응을 토대로 영아 가구의 소득 보장 확대, 가정 내 양육 지원 확대로 전환하고 있음.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의 전환기를 맞아 방향성을 점검하고 양육지원 범주 및 개별 정책의 적합성과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과 고려사항을 점검하여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제안함.
10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기관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운영 다양화 연구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기관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모를 비롯한 유치원 운영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분석을 기초로 다양한 유치원 운영 모형(안)을 개발하고, 이러한 모형(안)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법 개정, 행정 지원 등 정책방안을 제안함.

2023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KICCE 육아정책토론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육아정책 현안 발굴,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육아정책 추진의 실효성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함.
2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아시아지역 육아정책연구의 선도기관(The ECEC Hub of the Asia region)」이라는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정책연구사업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며, 국제기구 및 유관해외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를 통하여 기관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육아정책관련 국제비교 협동연구 및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함.
3	국내·외 육아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집 분석 국내외 육아정책 최신 연구동향 및 관련 문헌과 전자 정보, 자료를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국내 육아정책 자료의 데이터뱅크 역할을 수행함.
4	연구기획사업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육아정책 전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경영목표 추진·관리, 기본·수탁 연구과제 운영·관리·지원, 연구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계약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사업의 윤리성·공정성 확보 추진, 기관 자체평가 연구, 산·학·연과 연구협력 등을 추진함.
5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사업 연구사업 결과를 다양한 자료로 산출하여 정부부처, 육아관련 기관,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함.
6	학술활동 및 저널 발간 과제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국내외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학술정보 자료의 지속적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하여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위상 제고를 도모함.
7	연구지원전산 운영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전산관련 물품 등 구매 지원 및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함.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Ⅰ):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의 수립에 따라 유아교육·보육 분야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연도별 성과평가와 이행수준 진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가와 증거기반의 정책분석을 실시함. 정책의 유의한 성과와 함께 계획 대비 미비한 부분 및 미이행 지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과제와 정책의 우선순위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함.
2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Ⅱ):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든 가정에서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소외되거나 돌봄이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돌봄취약·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이를 위해 설계된 본 연구과제는 총 5개년의 연속과제로 기획되고 추진 중에 있으며, 2년차 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포함)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돌봄취약·위기가정 중 청소년부모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마련하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부모를 위한 육아지침서를 개발하고, 지원체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분야 인프라 현황 및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별 불균형 진단, 육아인프라 수요-공급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인적·물적 인프라 대응방안을 주요 상황이나 정책 변화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을 제언함
4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Ⅱ)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응 조치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성장·발달과 교육·보육·돌봄의 운영의 측면에서 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및 추적 관찰하는 2차년도 연구로서 팬데믹 하의 정책적 대응(input)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격차의 누적(outcome)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함.
5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Ⅰ): 실행과제 도출과 성과지표 개발 본 연구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하고자 함. 또한 추진 정책의 성공 요인과 저해 요인 등을 규명하고, 추진 성과와 영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보통합의 단계적 완성을 견인하고자 함.
6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Ⅱ) 0~6세 영유아 가구 패널 2,100사례 이상을 구축하여 영유아 가구의 소득, 소비 지출 전반과 양육관련 소비 행태(육아 물품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포함),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 수혜 현황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며, 매년 신생아 표본의 추가 구축을 통해 육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과 육아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패널 자료)를 생산·구축하여 정책 및 여타 연구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 내용은 매해 반복적으로 지속 조사하는 문항과 각 년도 주요 정책 변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시의 적절하게 추가되는 설문으로 구분됨.

2023년도 사업개요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7	미래환경 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Ⅱ): 영유아교육분야 SW·AI 활용방안 본 연구는 미래환경변화와 국정과제 유보통합 정책에 대응하는 (가칭) 영유아학교(유치원·어린이집) 모델 구축을 위해 첨단 디지털/에듀테크 활용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주목적인 정책 연구임. 본 연구는 3차년도 연구 중, 2차년도 연구로 1차년도 공간혁신 및 재구조화 방안이 이어 2차년도 첨단 디지털/에듀테크 활용 중, 최근 주목되는 SW·AI 활용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함. 미래 유아학교의 첨단 디지털 활용 및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및 영유아 핵심역량과 관련한 신기술 접근 기회 및 기술활용 전략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8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Ⅱ): 부모용 선별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4차년도 연속과제로,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를 조사하고, 기관에 파견(연계)될 영유아발달전문가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함. 기관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교사용 조기선별 도구와 안내 자료를 개발함. 2차년도 연구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조기발견 및 상호작용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1차년도에 개발한 교사용 조기선별도구와 연동된 부모용 조기선별도구를 개발하고, 가족의 역량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인식 개선 방안을 연구함.
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한국아동패널 Ⅱ)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하여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면서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가정, 기관 및 학교)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축적해왔음. 2023년도 사업으로는 중학교 3학년이 된 아동패널 아동, 아동의 부모 및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16차 조사를 실시함. 2023년 연구에서는 14차년도에 시작한 청소년문항들을 지속해서 충실히 조사하면서, 변수를 수정 및 보완함. 또한, 중·고등학교에 실시할 조사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계획함.
10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Korean ECEC Panel Study) 본 연구는 태아기부터 영유아,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경험과 환경적 영향,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등 생애 초기 성장과 관련한 횡단·종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지님. 2023년도 연구를 통해 만 1세 영유아의 발달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 보육 및 육아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육아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11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등 운영 유지보수
12	전산실 운영 사업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원활한 하드웨어 운영을 위한 온도 유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유지 정보자료실 운영 유지

2023년 연구사업 총괄표

기본

번호	연구과제명
1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2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4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II):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중심으로
5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
6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7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8	영유아데이터 통계 통합 현황과 개선 방안
9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10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기관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운영 다양화 연구

일반

번호	연구과제명
1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Ⅰ):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2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Ⅱ):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3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4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Ⅱ)
5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Ⅰ): 실행과제 도출과 성과지표 개발
6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7	미래환경 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Ⅱ): 영유아교육분야 SW·AI 활용방안
8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Ⅱ): 부모용 선별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한국아동패널 II)
10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Korean ECEC Panel Study)

I. 연구소 소개

II. 2022년도 주요 연구

III. 2022년도 주요 활동

IV. 2023년도 추진계획

2022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2 Annual Report

발행일 2023년 4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 화 02 398 7700

팩 스 02 398 7798

www.kicce.re.kr

편집·제작 유월애 02 859 2278

본 간행물의 무단 판매 및 복제를 금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Tel. 02 398 7700 Fax. 02 398 7798 www.kicce.re.kr